

“기도로 연합한 한 목소리” 남가주 교계 미국 위해 기도

제63회 국가 기도의 날

남가주 한인교계는 5월 1일 월서연합감리교회



남가주 교계가 올해도 연합해 국가 기도의 날에 참여한다. 이 행사를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관계자들이 이 행사의 취지와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좌로부터) 올림픽장로교회 정장수 목사, 여성목사회 백지영 회장, 목사회 정종윤 회장, 주님세운교회 박성규 목사, 자마 강순영 부대표, 성문교회 김광수 목사.

매년 5월 첫째 목요일, 전 미국인들이 함께 기도하는 “국가 기도의 날(National Day of Prayer)”에 남가주 한인교계도 동참한다. 올해 기도일은 5월 1일이며 주제는 로마서 15장 6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에 기초해 “One Voice United in Prayer”다.

이 날은 1863년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국가를 위한 기도의 날이 필요하다 제안한 이후, 1952년 의회의 결의에 따라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서명해 법으로 제정됐다. 이날 미국 전역에서는 4만2천여 곳에서 기도가 열려 미국을 위해 기도한다. 이 국가 기도의 날은 무신론자들에 의해 소송을 당해 2010년 위헌 판결을 받기도 했지만 2011년 항소법원이 이

를 뒤집으며 극적으로 부활했다. 당시 위헌 판결 후에도 오바마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해 이 행사가 미국 정치권에서 갖고 있는 위상을 재확인 하기도 했다. 남가주 교계도 수년째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와 남가주한인목사회, 자마(JAMA) 등을 중심으로 이 행사를 지키고 있다. 올해 남가주 한인들은 5월 1일 오후 7시 30분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기도하며 미주성서화운동본부와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도 참여한다.

이 행사에서는 자신과 미국의 죄에 대한 회개 기도와 함께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동성결혼 철폐와 성경적 가정의 회복을 위해, 공립학교와 각급 교사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 영화 TV 방송 인터넷 언론계의 복음화

를 위해, 대통령과 장관들을 위해, 입법부 사법부 군 지도자들을 위해, 캘리포니아 주와 LA 시를 위해, 한인교회와 차세대들 위해 기도한다. 설교는 자마의 대표인 김춘근 교수가 맡는다.

이 행사를 소개하는 7일 기자회견에서 자마의 강순영 부대표는 “세계 선교의 완성을 위해서는 미국에 대부흥이 필요하고, 대부흥을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 작금의 미국의 위기는 모두 우리가 기도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면서 남가주 한인교회들의 동참을 요청했다.

주최 측은 각 교회들이 행사를 앞둔 4월 27일 주일부터 한 주간을 국가 기도의 주간으로 선포하고 새벽,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 때 기도해 주길 부탁했다. 김준형 기자

크리스천 완벽주의 때문에 교회 내 정신 질환에 대한 언급 어려워

크리스천 세계관의 중심에는 타락한 세상 가운데 인류가 존재하며, 그 결과 모든 이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상황의 영향을 받기 쉽다는 믿음이 깔려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정신 질환에 관한 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채, 개인적인 죄나 믿음의 부족 혹은 영적인 공격 때문이라는 식으로 단순화한다.

최근에 이르러 교회에서도 정신 질환자를 돕고 병의 악화를 방지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다수의 크리스천들은 이 문제가 성경 공부나 기도 등 영적인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여긴채 전문적인 치료를 신뢰하지 않는다.

영혼 치유의 기초: 크리스천 심리학 제안 (Foundations for Soul Care: A Christian Psychology Proposal)의 저자이자 남침례신학교의 목회상담 교수인 에릭 존슨 박사는 “인간의 타락은 몸 전체에 영향을 준다”고 말한다. 존슨은 최

근 크리스천포스트에 “인간의 타락이 인간 두뇌에 영향을 준다고 믿는 이유는 생애를 통해서 뿐 아니라, 태내에 있을 때 유전적인 단계에서, 발생학적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달 28일(금)에 새들백 교회의 “정신 건강을 위한 모임과 교회”라는 제목의 행사에 참석했다. 캘리포니아 레이크포레스트에서 하루 동안 열린 행사에서 존슨은 “낙인과 성흔: 정신 질환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Stigma or Stigmata: Helping the Church Rethink Mental Illness)”라는 제목으로 강연했으며, 이에 크리스천포스트(CP)는 미국 기독교 심리학회(the Society for Christian Psychology)의 책임자이기도 한 존슨과 정신 질환에 대한 교회의 바람직한 접근법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

CP :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에게 관한 일반적인 오해는 무엇인가? 이 문제를 다룰 때.. >> 4면에 계속

박효우·정종윤 목사, LA한인회장 선관위원 사임

LA 한인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구성된 가운데 9명의 선관위원 중 외부인사인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박효우 회장과 남가주한인목사회 정종윤 회장은 사임 의사를 밝혔다.

박효우 회장은 “남가주 교계는 한인회장 선거에 직접 관여하기보다는 뒤에서 기도로 돕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서 사임 의사를 밝혔다.

한편, 박 회장은 선관위원으로 참여할 당시, 한인회 이사 구성에 1.5세와 2세의 수를 대폭 늘리라고 요구했다.

한인회 선관위원은 줄리어나 박 위원장과 임영배 부회장, 이인복, 이성진, 경정아 이사 등 내부인사 5명과 박효우 교협회장, 정종윤 목사 회장, 최원갑 재미축구협회장, 최용조 씨 등 외부인사 4명으로 구성돼 있었다. 김준형 기자

2세 위한 ‘삶의 십일조’ 세미나 열린다

2세 영아권 자녀들을 위한 “삶의 십일조” 세미나가 1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13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선미니스트리(김정환 목사)에서 열린다.

강사는 오석환 목사가 서게 된다.

행사 후원은 선미니스트리와 광영교회, PK Choir이 한다.

▷선미니스트리 주소: 13921 Artesia Blvd. Cerritos, CA 90703
 ▷문의: 213-500-2186

박창민 기자

ASE 나라정비
 유럽차 전문점
 SMOG CHECK
 323.734.4881 | 월~금: 8am~6pm 토: 8am~5pm | 1201 S.Western Ave, LA 웨스트턴과 12가

나라 오토 덴트
 범퍼·도어·바디복원
 무료견적·Rent Car

크리스천을 위한 **오바마케어 벌금면제 혜택**
 (H.R.3590 Religious Exemption)
월\$40~\$175
 • 수입과 신분에 상관 없음
 • 모든 의사, 병원 사용 가능
 • 한국에서도 사용 가능
 가문의 213-700-9212
 www.christianmutual.org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목회학석사 (M.Div.) & 신학석사 (M.T.S.)
 위치: GOLDEN GATE SEMINARY 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지원 마감일: 7월 1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 는 6월 1일)

> **한영이중언어과정은**

- 미래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양성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영이중언어로 진행되지만 골든게이트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 256-1311 EXT. 1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너는 나의 루카스” 삶을 비관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애가(愛歌)

충현선교교회서 창작 뮤지컬 <루카스> 공연, 발달 장애인 부부에게 일어난 기적 이야기

4일과 5일 7시 충현선교교회에서는 극단 문화행동 아트리의 창작극 뮤지컬<루카스> 공연이 열렸다. 2001년 캐나다 토론토 ‘데이브레이크(Day-break)’ 공동체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뮤지컬은 2006년 첫 선을 보인 후 지금까지 300회를 이상 공연했다.

이 뮤지컬은 예수회 사제 헨리 나우웬 신부가 발달장애인을 섬기 마지막 사역지 데이브레이크를 연변과기대 정진호 교수가 방문한 일을 계기로 창작됐다. 여러 어려움을 겪고 낙담한 상태였던 그는 KOSTA 강사로 토론토에 잠시 머물던 중 우연히 이 공동체를 방문해 루카스라는 이름의 아이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된다.

정진호 연령이 7-8세 수준인 발달장애인 공동체의 한 부부에게 세 번째 아이가 찾아오게 된다. 이미 두 명의 아이는 유산됐고, 세 번째 아이마저 태어난 후 15분밖에 살 수 없는 심각한 장애를 지녀 유산을 권고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이 부부는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낳기로 결심하고 열심히 기도했으며, 아이는 17일 동안 살 수 있게 된다.

정진호 교수는 이 이야기 속의 아버지의 한 마디, “나 같은 사람을 아버지



극단 문화행동 아트리의 창작 뮤지컬 <루카스> 공연의 한 장면.

가 되게 해 줘서 고마워”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게 된다. “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된 것으로 충분해.”

한 순간도 지루할 새 없이 흥미진진하게 전개되는 <루카스>는 파혼과 실직 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현우가 부르는 “예기치 못한 운명”, 휴양지로 잘못 알고 데이브레이크를 찾아온 현우에게 이 공동체를 돌보는 수잔이 불러 주는 “사람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 마찬가지”, 장애자지만 서로를 따스하게 보듬는 앤디와 줄리 부부의 모습을 본 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부르는 현우의 노래 “사랑할 자신도, 사랑받은 자신도 없어”, 아들 루카스의 이름조차 쓸 줄 모르는 앤디, 알파벳조차

모르는 장애인들을 보며 부르는 현우의 노래 “하나님은 잔인하거나 무능” 등 다양한 곡을 통해 관객을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태운다.

휴양지로 착각하고 데이브레이크를 찾았으나 자신의 기대와 전혀 다른 곳을 알게된 현우가 하루 빨리 그곳을 떠나려는 모습 속에서, 자신조차 돌보지 못하면서 아이를 낳아 키우려는 발달장애인 부부를 향해 잔인한 말을 퍼붓는 모습 속에서, 아들의 이름조차 쓰지 못하는 앤디와 자신의 비참한 상황에 비관하며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현우의 외침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타인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잃은 채 둔,

능력,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적 가치 기준만 쫓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폭로됐다.

한편, 뒤틀리고 일그러진 모습을 한 간호사들로부터 유산하라고 협박을 받는 끔찍한 꿈을 꾸는 앤디가 가쁜 숨을 내쉬고 마음을 추스린 후 아이를 낳겠다고 마음을 굳히는 장면, 맺줄을 자른 후 15분 밖에 버틸 수 없는 장애를 지닌 루카스를 위해 텅 빈 무대 위에서 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한번도 조른 적 없죠. 조금 더 시간을 주실 수 없나요?”라고 기도하는 앤디, 루카스가 태어난 후 매일 연습해 출생 증명서에 ‘LUCAS’를 직접 적어 넣는 장면, 루카스에게 꼭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있다며 “모든 사람들의 영혼에는 보이지 않는 실이 있어”라고 노래하는 앤디의 모든 살아 있는 것을 향한 ‘생명을 생명 그 자체로 보는’ 따뜻한 밝은 시선 속에서, 남을 돌볼 여유조차 사치가 돼버린 치열한 삶 속에서 잊혀졌던 순수, 그리고 하나님의 영혼을 향한 조건없는 사랑이 되살아난다.

단 몇 분, 단 며칠 밖에 머물 수 없는 심각한 장애를 지닌 루카스를 앤디가 간절히 보듬듯,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것이 이 뮤지컬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다.

<루카스>는 2002년 <더 플레이>로

뮤지컬 극본상을 수상한 김수경이 극본을 썼고 뮤지컬 <캣츠>, <명성황후>, <미녀와 야수> 등 유수의 작품에 출연한 뮤지컬 배우 박계환이 안무 및 예술감독을 맡았으며 <추노>의 임재범 곡 ‘낙인’을 작곡한 작곡가 김종천이 음악을 담당했다.

“우리에게 문화(文化)란 하나님의 말씀(文)이 나에게 실제 생명이 되는 것(化)만을 의미”한다고 선언하는 극단 문화행동 아트리(Artree)는 2006년 처녀작 <루카스>를 비롯해 매년 <버스>, <폰더씨의 위대한 하루>, <의> 등 복음의 메시지를 담은 새로운 창작 뮤지컬을 발표하며 문화선교를 통해 복음전파에 동참하고 있다. 또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111프로젝트’란 제목의 전도축제를 열어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번 공연에 이어 4월 11일(금) 오후 7시, 12일(토) 오후 6시 열마인 온누리교회(17200 Jamboree Rd. Irvine, 949-261-9100), 20일(일) 오후 6시 30분 샌호제 임마누엘장로교회(4435 Fortran Dr. San Jose, 408-263-5100)에서도 공연을 갖는다.

> 문화행동 아트리 : www.gospelartree.com
제니스 박 기자

남부개혁신학대학원 LA캠퍼스 개원식 열어

신교학박사 · 목회학박사 · 목회학석사 · 신학사과정 개설

남부개혁신학대학원 LA캠퍼스(Southern Reformed Theological College and Seminary LA Branch 김회창 총장)가 지난 5일 2975 Wilshire Blvd., #415 Los Angeles, CA에서 개원식과 개강식을 열었다. 학생 20여명으로 시작되는 엘에이 브랜치 캠퍼스의 본교는 휴스턴에 본교(총장 Dr. Terry Curtis)를 두고 있다. 이 학교는 신교학박사과정과 목회학박사과정, 목회학석사과정, 신학사과정이 개설됐다.

개강식에서는 이정근 목사(유니온교회 원로)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김경진 입학처장(일리노이즈 주립대학교 박사)의 인도, 풀러신학대 출신의 김건오 박사과정 책임자의 기도와 학사과

정 책임자인 이종재 목사(상수리교회 담임)의 축도로 진행됐다. 이날 서울신학대학 구약교수인 노세영 박사도 참석했다.

이어 개강 특강으로 김회창 박사가 요한복음의 선교적 교회론: Ecclesiology for Mission Based on the Gospel of St. John)으로 부패된 한국 기독교계를 혁신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네 가지의 교회론을 제기하여 앞으로 신학교의 선교적 개혁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오전에는 김건오 박사의 설교학 이론 강의와 개강식 후에 풀러신학대에서 크리니컬 사이콜리지를 전공한 한 쿤 박사(Ph. D)의 ‘사역을 위한 효과적 커뮤니케이션과 심리학’(Effective Communication and

Psychology of Ministry) 강의가 있었다. 매주 화요일 저녁 6시30분부터는 율법과 복음(Law and Gospel), 목요일 저녁에는 사역지도력신학(Theology of Ministry Leadership) 이외에도 갈등관리(Conflict Management), 상담의 이론과 실제(Theory & Practice of Counseling)가 강의되고 있다.

이 학교의 특징은 장학금이 많이 마련돼 다른 신학교보다 저렴하게 공부할 수 있다.

학교측은 “현대에 꼭 필요한 과목을 강의하며 선교적 개혁 복음주의를 추구하는 이들의 편입학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213-219-0649
박창민 기자



창대교회 무료급식 및 부활절연합예배 연다=창대교회(이춘준 목사)가 오는 19일(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노숙자를 위한 무료급식을 펼친다. 이어 20일(일) 오전 5시 30분에는 샌버나디노 지역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바드
3130 W. Olympic Blvd, Suite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어름더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원) w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천천히 다 둘러보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ijy@gmail.com

15년간 성지순례를 인도해 온 이스라엘 알리아 선교회(I.A.M)의 KNOW-HOW와 파이오니아 성지순례 전문여행사(SINCE 1986년)의 풍부한 경험이 합쳐진 명품 순례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 그리스, 로마 성지순례팀 데모집”

<2014년 가을 성지순례 일정>

- 2014. 8.18~8.29 - 젊은이들을 위한 이스라엘 전일정 단기순교(11박12일) \$999 + 항공료
- 2014. 9.1~9.6 - 한국 선교지(순교지) 성지순례(5박6일) \$699 + 항공료
- 2014. 11.3~11.12 - 이스라엘, 요르단 2개국(9박10일) \$1,399 + 항공료
- 2014. 11.17~11.26 - 이스라엘, 요르단 2개국(9박10일) \$1,399 + 항공료
- 2014. 11.10~11.17 - 터키, 그리스, 로마 3개국(7박8일) \$999 + 항공료
- 2014. 11.10~11.19 - 터키, 그리스 2개국(9박10일) \$1,399 + 항공료
- 2014. 11.10~11.22- 터키, 그리스, 로마 3개국(12박13일) \$1,999 + 항공료

(※ 현지사정에 따라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차별화된 명품 성지순례, 옵션이 없는 순수한 성지순례, 기독교 역사적, 선교적 관점으로 진행되는 순례, 교회들이 원하는 맞춤형 순례, 젊은이들을 위한 단기순교 및 정탐, 한국 성지(순교지)순례 등..

* 특별혜택사항 : 항공, 호텔, 버스, 음식(한식포함), 편안하고 여유있는 스케줄, 현지 한국 가이드의 질적 우수와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의 경쟁력

할렐루야! 성도님! 안녕하세요?

모세의 출애굽의 땅! 예수님의 부활의 땅!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시작된 그 땅!

바로 그 축복의 현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이스라엘, 요르단 2개국과 터키, 그리스, 로마 3개국 성지순례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 성령의 땅을 밟기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님들은, 오른쪽 안내와 같이 금년 가을 성지순례 일정을 참고하시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 성지순례 및 항공권 문의전화번호: 714-351-0124

* 성지순례 프로젝트 팀장: Paul 최 목사(15년 성지순례 인도)

* E-mail : choigh1115@gmail.com

* 모든 항공권 가격 최저 보장!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바로 확인시켜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예친교회 창립 4주년 감사예배 드리고 6명의 새일꾼 세위



예친교회가 지난 6일 창립 4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예친교회(김민재 목사)가 지난 6일 오후 4시 30분에 창립 4주년 감사예배를 드리고 6명의 새 일꾼을 세웠다. 이날 시무권사 김규령, 노영희, 문선주 씨가 시무장으로 임명되었다.

명철, 박명재 씨가 각각 임직했다. 김민재 담임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 부부와 한 명의 성도로 시작해 개척한 지 4년이 되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목사는 “개척 초기부터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 선교를 보내게 하시고, 영혼에 대한 사랑을 키우게 하신 특별한 섭리가 있었다”며 예친교회가 창립 4주년을 맞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공동체의 사명,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가는 섬김의 공동체의 사명, 그리스도의 제자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공동체의 사명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또 “예수님의 친구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가자”면서 “100명도 채 안되는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지만, 우리는 약하나 예친교회

이인규 기자

“40점의 십자가 성화” 전시회 40일 동안 열린다



‘십자가 성화 전시회’ 작품들(위, 오른쪽)과 전시회 리셉션 후 관계자 기념촬영(아래).

미주복음방송 4층 세미나실에서 미주복음방송 스테이션 구좌 후원을 위한 진효비 사모의 ‘십자가 성화 전시회’가 4일부터 5월 14일까지 열리고 있다. 전시회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 토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린다.

4일 열린 전시회 리셉션에서 진효비 사모는 인사하는 자리에서 “좋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며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바라고, 40일 동안 열리는 전시회를 즐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진효비 사모는 사순절을 맞아 십자가를 주제로 그린 40여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진 사모의 남편은 LA평통 위원 진교룡 박사다. >문의: 213-381-1190

토마스 맵 기자

아주투어, 창립 30주년 기념식 열어



아주투어가 지난 4일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아주투어(대표 박평식)는 지난 4일 중식당 용궁에서 박평식 회장을 비롯해 임직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미주 한인 여행업계에서 창립 30주년을 맞은 회사는 아주투어가 처음이다.

1984년 설립 후 한인타운 대표기업으로 성장해온 아주투어는 미국 서부 관광의 표준으로 자리잡은 ‘엘로우스턴 8자 코스’, ‘5-8-9 관광법’ 등을 창안했으며, 미국, 남미,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등 5대양 6대주를 포괄하는 수준높은 여행상품을 연속 출시하며 부동의 1위 기업

으로 자리매김해왔다. 박평식 대표는 “아주투어의 30년 역사 속에는 변함없이 사랑을 보내 주신 한인 커뮤니티와 고객의 성원이 있었다. 앞으로도 고객의 행복여행을 책임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자”고 다짐했다. 아주투어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고객 사은 행사의 일환으로 다양한 특별상품을 출시하는 한편, 수준높은 여행 컨텐츠와 세계 일주 관광지 정보를 집대성한 여행정보지를 제작해 한인 커뮤니티에 무료로 선사하고 있다. 박창민 기자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24hr 한국어 서비스

굿모닝 보험 213.761.9990 KEVIN YOO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LA 한남체인내 건강제품코너

인터옌의 직접캔 원종야생 산삼

매실, 홍삼, 비타민, 녹용, 각종 한방 농축즙

213)386-3585

www.uslahealth.com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O.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 건축설계 ...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 의사보조 ... Medical Assistant
- 약사보조 ... Pharmacy Technician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용자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률 보장)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ESL ...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1~6단계, 회화반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 아카운팅 AAS 학사취득 ... Accounting (AA Degree)
- 그래픽, 포토샵 ...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편리한 수업시간 대: 아침반, 저녁반
- 유학생을 위한 1-20 발급 (이민국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 교수진: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약도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파키스탄, 신성모독법 다시금 국제사회 비판 놓여

인권단체들, “가장 강력한 기독교 박해 수단” 지적

파키스탄의 악명 높은 신성모독법이 다시금 국제사회의 비판대에 올랐다. 최근 현지 야당이 신성모독법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시위를 벌이는데 이어 국제 인권단체들 역시 신성모독법 철폐를 촉구하고 나섰다. 파키스탄 야당들은 지난 주말 27세의 사안 마시가 신성모독법에 의해서 종신형과 20만 루피(한화 약 24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데 대한 부당함을 제기하며 시위를 벌였다.

마시는 2011년 12월 이슬람 성직자에게 신성모독적 문자를 보낸 혐의로 체포됐는데, 마시를 기소한 검찰은 마시의 혐의를 입증할 어떤 증거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언론은 보도했다.

검찰은 마시가 기독교인 소녀와의 결혼 약속이 무산되자 소녀의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신성모독적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마시가 사용했다는 휴대전화나 신성모독적 문자, 통신회사의 문자 발송 기록 등을 범정에 하나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시의 변호사는 경찰이 마시를 체포한 후 고문을 하고 혐의를 자백하라고 강요했고 마시를 고발한 사람 역시 경찰로부터 마시를 고발하라고 강요 받았다고 주장했다.

마시를 고발한 사람은 법정에서의 초기 진술을 번복하며 자신은 신성모독적 문자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마시의 변호사에게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이 마시가 휴대전화를 구입했다고 주장하는 시각에 마시의 진술에 있었던 사실이 동료 직원의 사실에 증명됐다. 이처럼 마시의 무죄를 증명할 여러 자료와 정황, 증거가 많은데도 판사는 마시에게 신성모

독죄를 적용해 이번 판결을 내린 것이다.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Amnesty), 리걸 에이드(Legal Aid) 등은 마시에 대한 판결을 “가짜 정의”라고 부르며, “마시의 재판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깊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마시의 혐의에 대한 증거는 불충분하며, 그는 지금 당장 자유의 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단체들은 또한 마시의 경우가 신성모독법으로 인한 유일한 피해 사례가 아니라, “신성모독법으로 인한 많은 희생자들이 있으며 심지어 재판 과정이 끝나기도 전에 이들이 무슬림들에게 살해 당하는 일도 빈번하다”고 밝혔다.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은 적용에 대한 판단이 지극히 주관적이라는 점을 인권단체들을 지적해 왔다. 이들



교회 박해에 악용되고 있는 신성모독법 폐지를 요구하는 파키스탄의 기독교인들.

단체들은 신성모독법이 기독교인 박해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며 그 철폐를 위해 국제사회가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파키스탄에서는 신성모독법에 대한 반대 역시 생명의 위협으로 이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한 예

로 파키스탄 의회 내 유일한 기독교인 의원이었던 사바즈 바티 의원이 신성모독법 철폐를 주장했다가 2011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암살당하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순현정 기자

〈신은 죽지 않았다〉는 하버드 출신 의사의 실제 이야기



Paul Kwo는 영화에서 밉 왕의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한 인물을 연기했다.

최근 개봉된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에서 다뤄지는 무신론자의 회심 사건은 테네시의 안과의 밉 왕(Ming Wang)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

중국에서 태어나 1960년대 수백만 명의 지식인이 강제노동수용소로 끌려 갔던 문화혁명을 겪은 왕은 1982년 50불이 조금 넘는 돈과 영어사전을 지니고 미국으로 왔다. 이후 하버드 의대에 진학해 우등생으로 졸업하고 미국 내 레이저를 이용한 첫번째 백내장 수술을 성공시켰다.

대학시절 무신론자였던 그는 자신의 교수와 하나님과 신의 존재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

왕은 크리스천포스트에 이메일을 통해 “기독교 신자인, 하버드 소아과 교수는 혼란스럽고 위기에 빠져 있는 내 마음을 주목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의 의학적 전문지식으로 이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의 학적 지식과 상관없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였을 것이다. 그는 내가 과학에서 찾을 수 없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걸 도와줄 신앙을 소개함으로써 나

를 인도하고, 내게 영향을 줄 기회, 내 삶의 이해와 시각을 넓혀줄 기회를 찾았다.”

왕은 교수가 차는 설계자 없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두뇌가 무작위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믿냐고 물었다고 회고했다.

왕은 “그때 바로 내 인생의 문이 열렸다. 나는 하나님을 찾았고 기독교를 발견했으며 그 안에서 내가 찾고 있던 답을 찾았다. 나는 과학과 신앙이 ‘그것들은 무엇인가’와 ‘그것들은 왜 존재하는가’라는 각각 다른 목적에 봉사하는 동전의 양면임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후에 그는 메사추세츠 공대에서 또 다른 의학 학위를 받았다.

왕은 기독교에 대해 확신하게 된 후 중국을위한기독교봉사재단(Wang Foundation for Christian Outreach to China)과 개인재단(Wang Foundation for Sight Restoration)을 설립했다. 왕은 재단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55개국 이 넘는 지역에 무료개인수술을 제공하고 있다. 그의 경험은 내슈빌의 베델월드아웃리치교회의 라이스 브룩

의 책 〈신은 죽지 않았다(God's Not Dead)〉에서 다시 이야기했다. 2013년 발표된 이 책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된 6명의 무신론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영화 속에서 왕에게 영감을 받은 인물인 마틴 역은 Paul Kwo가 맡았다. 왕의 실제 경험과 달리 마틴은 교수의 “신은 죽었다”는 선언에 급우 조쉬 휘튼(셰인 허퍼 역)이 저항하자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재고하게 된다. 왕은 영화로 옮긴 그의 이야기가 “멋지다”며 “삶이란 과학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믿음에 관한 것임을 다른 학생들이 깨달을 수 있게 도와야 할 책임이 내게 있다고 항상 생각했다. 이는 믿음과 과학이 진정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앙과 목적 의식에 따라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과학과 신앙의 갈등을 풀고 그 둘이 동역하게 할 수 있다. 1+1은 2이상이며 이는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더 강력한 해법이 될 것이다”라고 썼다.

그는 크리스천포스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내가 한 모든 일들, 의학, 봉사, 예술 이 모든 것을 하도록 내게 영감을 불어넣었다”고 말했다.

그는 “원작 〈신은 죽지 않았다〉에서 하나님의 존재의 증거와 관련해 내가 한 주장 중 몇몇은 조슈아의 입을 통해 제시된다. 원작에 담긴 내 이야기의 절반 정도는 주인공 조슈아 안에 스며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3월 21일 개봉한 영화〈신은 죽지 않았다〉는 북미박스오피스에서 9백 20만불을 벌어들인 개봉 첫주에 비해 한계단 낮은 5위를 기록하며 막을 내렸다.

주디 한 기자

» 1면에 이어서

우리는 어떤 잘못을 범하는가?

존슨 : 그 사람 스스로 정신질환을 초래했다는 오해다. 크리스천 공동체에서, 우리는 그것을 그의 죄라고 혹은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단정짓는다.

CP : “정신 질환”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런 질병은 영적 상황에 의한 것이라고 확신하는 크리스천에게 어떻게 말하는가?

존슨 : 나는 먼저 인간의 삶의 모든 것에는 영적인 차원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싶다. 영적인 것과 관련되지 않은, 육체와만 연관된 문제는 없다고 말하고 싶다. 그것은 또 다른 극단적인 설명으로, 세속 문화의 방식이다. 그들은 모든 것을 두뇌, 생물학, 사회학의 탓으로 돌린다. 기독교적 접근 방식은 종합적이며 전체적이다. 우리는 이 질병을 일으킨 모든 차원을 끌어오길 원한다.

정신 질환에 대해 회의적인 크리스천들에게, 나는 인간의 타락이 몸 전체에 영향을 줬다는 것을 설명해주는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말한다.

성경에서는 죄를 우리가 지닌 가장 심각한 심리적인 문제라고 말하나, 우리는 이것을 단지 심리적인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된 심리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주디 한 기자

못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영혼과 육체는 심오하며 신비로운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다. 이 관계에 관한 가장 바람직한 설명은 영혼이 두뇌에 영향을 주며, 두뇌 또한 영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는 모든 개인들과 모든 특정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내 경험에 비추면, 정신질환에 대해 회의적인 이들일수록 이 질환을 겪는 이들과 일해본 경험이 적었다.

CP : 성경에서는 정신 질환 문제에 접근하는 크리스천에게 어떤 관점을 제공해주는가?

존슨 : 성경은 삶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 신념을 제공해준다. 성경은 우리가 창조했으며, 우리의 타락으로 피조물이 손상됐다 말한다. 또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상황과 어려움과 곤경을 깊이 염려한다고 가르친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고난을 담당하고, 인간의 곤궁을 함께 하셨다고 설명한다.

성경에서는 죄를 우리가 지닌 가장 심각한 심리적인 문제라고 말하나, 우리는 이것을 단지 심리적인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된 심리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주디 한 기자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정재호, 이원삼, 박기호, 방지각, 김준연,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토마스 탕
 고문번호사 : 정찬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런,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엔키아 콜라보레이션(NKiA Collaboration-North Korean in America)

“미국에 살고 있는 북한 이민자들의 모임”을 위한 첫 번째 후원의 밤

- 일 시: 2014년 4월 12일 토요일 오후 6시
- 장 소: 사우스베이 나눔 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영구)
3521 Lomita Bl. #202B. Torrance Ca 90505
- 문의 전화: 310)404-6219

*모든 순서는 영어와 한국어로 동시 진행됩니다.

간 중 : Sammy 현 집사, 2008년 11월 25일 미국 입국(당명). 현재 대한신학교 토렌스 분교 M.Div 재학중, 일식당에서 셰프로 일하고 있음

“15일 동안 나를 숨겨 주었던 두만강가의 친구를 두고 올 수 없어서 완강하게 거부하던 친구를 설득하여서 함께 탈북을 하였다. 만약 그 친구를 두고 오면 그 친구는 반드시 고향에서 없어진 나를 숨겨주었기에 잡히게 될 것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감을 함께 건넜다. 그리고 우리 부부는 가장 사랑하던 사람을 두만강 변에 남겨 놓기도 하였다.

- Sammy 현 (엔키아 선교회 부회장) -

초청 찬양 사역자: 찬양-전용대 목사 (한국 찬양 사역목사)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뵈셨네.” “아버지 이 죄인일”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을 더 많이 이해 할 수 있다.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우리는 받아야만 했고, 받는 것이 매우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련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남보다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려 우리에게 그런

감동하기 힘든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매일 받으려만 하는 약자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강한 자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줄 수 있고, 용서 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배고팠던 시간이 우리들의 장점이라는 것 확신한다. 그것을 보여주고자 엔키아 선교회가 모였다.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시편 104:28-35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한다는 이 노래는 세상 노래가 아니고 심령의 노래, 찬양을 다짐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알고 믿어져서 하늘 소망을 목적으로 살게된 우리는 하나님이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엄청난 희생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황송무지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고 영화롭게 해 드릴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진리를 올바르게 깨달았거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필연적으로 되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은 은혜는 은혜대로, 구원은 구원대로 받아 챙기고 생활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소욕을 위해 거짓말과 남을 손해 입히면서 자기를 살피우는 세상조건들을 가꾸는 일에 애를 쓰게 됩니다. 이것은 은혜를 헛되이 받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3:21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는 말은 본래의 창조 목적이기도 하겠지만 은혜계약을 성취하시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시키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보혜사로 파송시켜 주시어서 재창조하신 거듭난 성도의 삶은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찬송을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재창조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28-29절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피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낮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흠으로 돌아가나이다"란 표현은 상당히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절대주의 신앙, 하나님 주권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정통 보수 신앙의 원리를 이처럼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1:36의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는 사도바울의 신앙고백과도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신앙고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본인들의 신앙을 재정립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왔고 주님이 목적이 있어서 주장하시는 가운데 존재하다가 주님이 정리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끝이 난다는 신앙은 만고에 가장 정통하고 보수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보살피시며 하늘조건으로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

다. 우리를 향하여 팔을 벌리고 손을 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시니 우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그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얼굴을 돌리시고 감추시니 심판을 받게 되고 두려움으로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니 육신도 한 줌 흠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 주신 그 시간부터 내 인생의 고배는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음을 망각하지 말아야 하나님의 은혜보장을 허락받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사정없이 치시니 정신이 아찔하더라"하니 듣고 있던 사람이 "그 어디 신경 쓰여서 세상 살겠나, 나는 말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세상 재미도 즐기고, 내 맘에 원하는 것에 폭 빠져 즐기고 살아도 하나님이 나는 절대로 때리시는 일이 없던걸...그러니 하나님이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것 아니겠는가"합니다. 후자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척 하는 거짓 신자임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이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신 안 될 길을 가면 그 길을 막고, 해선 안 될 짓을 하려 할 때도 막으시지만 그래도 하게 되면 사정없이 때려서라도 회개하게 만드시고, 다시는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못하도록 치리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6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했습니다. 버려진 백성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관심 밖에 있는 자입니다. 그들은 산자이지만 실상은 이미 죽은 자들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루라도 빨리 진리 안에서 거듭나기를 재촉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불신앙의 폐단으로 잃었던 모든 것들을 믿어지는 믿음의 자격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한 나를 두고 집중적으로 역사해 오신 사랑의 섭리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에덴에 살던 아담과 이브는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으로 마음껏 먹고 즐기면서 당신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며 찬송하며 살아주길 바라셨습니

다. 이것은 그들을 향하신 신앙 사명적 기대가 확실했을 동안 그들에게 온전히 허락받아진 축복의 조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신앙을 상실하고 마귀의 꾀임에 빠져 영적으로 마귀에게 예속되고 나니 그 모든 조건은 서둘러 하나님이 빼앗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자녀시간의 인연으로 인정만 받고 있다면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려하시고 준비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도 갖추지 못한 주제에 그분의 자녀된듯 착각하고 "하나님, 아버지..."하며 부르짖어도 "하나님,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죄인 그대로 예배당만 들락거렸으니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속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7:22-23에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을 가

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만 하면 그 인생은 그때부터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조건을 보장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비밀을 깨닫고 기적을 체험하면서 사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게을리 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 받은 자들은 그 입술에서 찬송이 흘러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것,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 더욱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진리가 정통한 교회, 영적인 소망을 올바로 가질 수 있는 교회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은 이단사슬이 난무하고 영계가 극도로 혼란해 지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단에 빠져 정력과 재산을 다 바쳐도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는 잘못된 함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감사의 조건을 신앙기준으로 영적차원에서 찾아보면 무진장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으로 살다보니 이권과 야심 때문에 감사보다는 허욕으로 불만과 불평, 탄식으로 살아왔음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찬송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 V 한국 방송 설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크리스천 투데이	7면 설교 / 동영상 · 인터넷신문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 V 미국 방송 설교		라 디 오 미국 방송 설 교	
COX TV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워싱턴DC.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7시 / 동영상 설교 제공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590
			사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이라이프 시간 오후 5시
크리스천 헤럴드	7면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본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기독일보는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 위에 현 시대를 읽는 균형 잡힌 시각과 정론을 제시하는 교계 신문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미디어의 지평을 선보일 기독일보를 기대해 주십시오. 많은 기독교인들의 자부심, 꿈과 희망이 되는 미디어 기관이 되겠습니다. 기독일보를 향한 관심과 사랑,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Tel. 213) 739-0403



2014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총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호라이즌대학교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복지 학과
학사: 신학/상담학
석사: 신학/목회학/상담학
박사: 신학/상담학

CA 주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520 S.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736-5115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정회원 인준
특전: Sevis I-20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oi Chang Kim: (213) 268-9367
hoichangkim@hanmail.net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S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통신신학 *한국상고사(한단고, 규원사학)
- 신학(학사, 석사, 종교철학박사 전공) .
- 한국상고사(교조신, 고구리, 백제, 신라, 발해) 전공은 일제 식민사학 (단국신학)이 아닌 전통역사사 한단고, 규원사학 중심으로 학사, 석사, 박사 단계 완성 가능함.

*본교는 캘리포니아 Education cord #94874 비영리종교법인(연방 501C3)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한국장로교단 미주노회에서 남녀 목사안수 가능함.

아메리칸 중앙대학교 중앙신학대학원 www.acus.edu.us
mail, 379 Loa drive #301 L.A, CA 90017 paul Lim : 213-908-8986
email : acus-edu@hotmail.com / acusimjeongul@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미주충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 info@chongshinusua.edu
www.chongshinusua.edu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i.us

부교역자 및 전도사 청빙

LA 코리아타운에 위치한 올리브나무 교회에서
 부교역자 및 전도사를 청빙합니다. (풀 타임 및 파트 타임)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실 분은
 간단한 이력서를 이 메일로 보내 주십시오.
 Email : dsbio@yahoo.com

유급 찬양팀 모집

찬양 보컬과 세션팀을 함께 섬기실 분을 모집합니다.
 * 세션팀 : 드럼, 베이스 기타, 일렉 기타, 키보드 각1명씩
 * 보컬팀 : 여성, 남성 각 파트 2명씩
 * 찬양인도자 : 1명
 ● 목요일 저녁 찬양 예배와 주일 예배 인도
 실력보다 신실한 마음을 가진 분이면 좋겠습니다
 소정의 사례비가 있습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올리브나무교회 Tel : 213-300-9762
 300 S.Western Ave, LA, CA 90020 Email : dsbio@yahoo.com

담임 목사 청빙 공고

휴스턴 사랑의 교회는 설립 18년된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목회하실 본 교회 제 3대 담임 목사를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I. 청빙요건

1. 정규 신학 대학원을 졸업한 (M.Div) 목회자중 미국 장로교회 교단 (PCUSA) 소속이거나 가입이 가능한 분
2. 5년 이상 목회 경험이 있고 이민 목회와 2세 교육에 사명감과 비전을 가지신 분
3. 미국 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II. 제출 서류

1. 이력서 (최근 가족사진 포함)
2. 신앙고백서, 목회 소견서
3. 목사안수 증명서
4. 최종 신학교 졸업 증명서
5. 추천서(2통) 및 최근 설교DVD (2개) 가능하시면 구약 1편과 신약 1편

III. 제출 마감일: 2014년 5월 10일

IV. 제출처: 청빙위원장 (최맹모 장로)

우 편: Pastoral Nomination Committee
 Love Presbyterian Church of Houston,
 8101 Senate Ave., Houston TX 77040
 이메일: pncpoch@gmail.com

V. 기타:

1.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서류 심사를 통과하신 분에 한하여 추가 서류 목록과 제출 기한을 별도로 통지할 수 있음.
3. 전화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휴스턴 사랑의 교회 담임목사 청빙 위원회
 www.houstonlovechurch.org

담임 목사 청빙 공고

뉴욕 새교회는 본 교회 제 3대 담임 목사를
 아래와 같이 청빙 합니다.

I. 지원 자격

1. 정규 신학 대학원을 졸업한 (M.Div) 목회자중 미국 개혁교회 교단 (The Reformed Church in America: RCA) 소속이거나 가입이 가능한 분
2. 5년 이상 목회 경험이 있고 이민 목회와 2세 교육에 사명감과 비전을 갖고신 분
3.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이거나 미국 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II. 제출 서류

1. 이력서 (소정 양식)
2. 자기 소개서 (소정 양식)
3. 목회 계획서 (소정 양식)
4. 최종 신학교 졸업 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5. 최근 설교 DVD (2개) 나 또는 설교를 들을수 있는 home page 주소

III. 제출 마감일: 2014년 5월 31일

IV. 제출처: Pastoral Search Committee,

The New Church of the Greater New York,
 1 Willow Street, Roslyn Heights, NY 11577
 • 문의: 청빙위원장 (황달연 장로) :
 917-576-3921, dalehwang100@gmail.com

V. 기타:

1. 서류는 보완유지 및 분실예방을 위하여 등기 우편 (FedEx, UPS) 으로만 받음
2.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해당자에 한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수 있음
4. 소정 양식은 뉴욕 새교회의 home page (www.newchurchny.org) 에서 볼수 있음.

뉴욕 새교회 담임목사 청빙 위원회

예수 그리스도와 겸손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북아프리카 출신의 신학자 어거스틴은 겸손의 중요성을 말과 행동으로 잘 가르치던 스승입니다. 한번은 제자가 신자의 첫 번째 덕목이 무엇이라고 물었을 때 “겸손”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둘째 덕목을 물었더니 그것도 “겸손”이라고 하였습니다. 셋째 덕목을 묻는 제자에게 다시 “겸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겸손이 최고의 덕목이라는 말입니다.

어느날, 어거스틴이 바로 열방에 있는 제자 레이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방에 있는 것을 아는데, 다시 여러 번 불렀습니다. 나중에는 화가 나서 제자가 있는 방문을 세차게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 제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어거스틴은 제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면서 부탁하였습니다. “레이나야, 너는 네 발로 내 목을 밟고, ‘교만한 어거스틴아,’ ‘교만한 어거스틴아,’ ‘교만한 어거스틴아’라고 세 번 외쳐다오”라고.

겸손의 덕은 참으로 영기 힘듭니다. 자신이 교만하다고 해서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겸손하다고 해서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외양이 겸손하다고 해서 그의 마음이 진정 겸손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어제 겸손하다고 해

오”(벧 2:3). 겸손은 그러므로 고귀한 사회적인 선택입니다. 겸양이 개인적인 낮춤이라면 겸손은 선택을 통한 사회적 낮아짐입니다.

겸손의 유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겸손은 첫째로 매력 있고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을 싫어하는 이웃은 없습니다. 둘째로 겸손은 남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배우게 만들고, 내가 지속적으로 성숙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셋째로 겸손은 자신의 착각과 환상에서 벗어나 주변과 협력하게 만들고 심지어 하나님을 깨닫고 따르기 위하여도 필요합니다.

역사 속에서 이러한 겸손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명예-수치의 관념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로마인은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 경우, 이를 질투와 증오로 받기 보다는 먼저 수치와 위신의 추락이라고 보았습니다. 겸손이 결코 마덕이 아니던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겸손의 궁극을 보여주셨습니다.

산상수훈, 제자들의 발을 씻는 모습, 그리고 십자가는 겸손을 가르쳐줍니다. 주님은 최고로 겸손한 교사이자 구세주입니다.

서 오늘도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겸손하다고 하는 순간 나는 교만하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나 가장 영향력 있고 감화력 있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겸손은 굴욕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견해를 모두 받아들이는 포스트모던적 관용(tolerance)을 겸손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자신의 주장이나 확신을 유지하면서도 상대를 존중하는 겸손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겸손은 “선택”입니다. 겸손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위상을 낮추는 포기입니다. 겸손이 “사회적”인 것은 타인을 자신의 위에 두기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타인을 낮게 여기십시오

희망을 경영합시다



김지성 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 성취를 약속하셨습니다. 희망은 신앙과 확신 속에서 성장해가는 미래의 열매이며, 인내와 갈망 속에서 표현되는 기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속에서 희망을 키우고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희망의 실재를 약속받은 자들은 결코 자신의 열악한 현실과 환경을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희망을 간직한 사람은 오로지 미래의 목표를 성취할 날을 고대하며 그 날의 열매를 위해 오늘도 현실 속에서 성실히 땀을 흘립니다. 희망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비록 보이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을 미래의 축복을 향해 오로지 신앙과 노력을 양손에 쥐고 달려가는 자입니다.

희망이 없으면 삶의 목표도 없기 때문에 일시적 쾌락에 탐닉하여 방종과 타락을 일삼거나 절망 속에서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반복하는 자들은 순간적으로는 기쁨을 얻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한 허탈감은 오래도록 지속되기 마련입니다. “소망중에 즐거워하라”(로마서 12:12)는 말씀처럼 희망 속에서 절망을 이겨내고 일시적 욕망을 절제할 때 비로소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역사전에 서는 희망을 “신뢰와 확신의 감정”이라 정의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희망이 신앙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으며, 참된 신앙과

주어진 시간을 희망 속에서 보내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희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잃어버려도 희망의 줄을 놓지 않는다면 그 삶은 반드시 성공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할 절대적 이유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 의해 이끌림 받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현순호 목사
 실리콘밸리노인선교회

명의 침을 거느리고 밤과 낮이 없이 쾌락에서 해매는 동안 그의 자녀들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나라가 망하는 쪽으로 기울어졌다. 그때 하나님이 두 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책망하시고 돌아서라고 하셨으나 돌아서지를 못했다. 결국 그는 망하고 그 나라는 크게 돌로 나뉘어지고 그의 죄인으로 남게 되었다(왕상11:9).

반대의 경우도 있다. 훗 집사의 소원은 일등을 해 보는 것이다. 학교에서도 밤낮 이등이었다. 대학에 들어갈 때도 재수를 했고 취직할 때도 두 번째 모집에 합격했다. 심지어 교회에서 안수심사를 선출할 때도 두 번째로 되었다. 그는 그것이 불만이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축복인 것을 새로 깨달았다. 일등은 그 자리를 지키면 그만이지만, 이등은 일등이 되려고 더 노력하는, 목적 의식이 강하면서 더 진보적이지 않았던가!

성경을 보면 알듯 하면서도 모를 사건 중의 하나가 솔로몬의 이야기다. 그는 성군이던 다윗의 아들로 등극해서 그 바쁜 중에서도 천 번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지혜롭게 정치를 잘해서 백성들을 잘 살게 만들고, 군력을 키워 국도를 확장해서 감히 넘보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도록 강국을 만들었다. 긴장과 시련이 없고 근심 걱정이 없을 때 그는 타락하기 시작했다. 겸손이 교만으로, 신앙 중심에서 자기욕망을 채우는 쪽으로 타락하면서 주색에 빠져 천

사도 베드로는 스승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실 때 자기에게 그 불뿔이 될까 겁이 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하고 나아가서는 저주까지 했다. 그때 아침을 알리는 닭이 두 번째 울 때 선생님의 예언이 생 각 나서 통곡을 하며 회개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변해서 순교자까지 되었다. 그는 두 번째 닭우는 소리에 자기를 발견했다. 두 번의 기회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혈액 해독 / 기력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심장, 뇌 혈전용해 뼈, 골수 영양공급

권장소비자가격: \$184/병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데 있습니다

산성	중성	알칼리성
3.5	6.0 7.0 8.5	9.0 9.5 10

셀라케어 제품은 6년 경작후 1년 휴지기를 지키면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작물을 엄선하여 우리몸에 흡수가 잘 되는 알칼리성으로 만듭니다.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신비한기적의영양제 M3[®] 세트

- 좋은 흙에서 나온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 체내 흡수가 빠르므로 복용 효과가 높습니다. (1-3일 내)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 셀라케어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복용가능합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 셀라케어
SELLA CARE[®]

셀라케어 효능사례

무슨 병에 걸렸는지 큰 효과를 줄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발작, 자폐증, 무감각증	시력장애인으로 태어나 무감각증으로 폐인 상태, 셀라케어 복용 후 완치되어 등산도 다닐 정도입니다. 방세환(20세, 원주) 010-5599-2633
대장암 말기	대장암 말기에서 간으로 전이된 상태, 2달 복용후 정상으로 회복됨
위암 3기	카이저 병원에서 수술을 권했는데 M3셋트를 3개월 먹고나서 암수치 1,360으로 정상으로 돌아와서 수술을 하지 않게 되었음. Mr.박(72세, 엘에이) 213-268-8381
심한 부정맥, 해소, 천식	심장수술을 받은 분으로 3일 복용 후 상태가 많이 호전됐음, 30년이상 기관지 천식과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했으나, 셀라케어 복용 후 정상으로 돌아옴. 양호연(42세, 엘에이) 213-500-4471
유방암 완치 후 모유수유	오른쪽 유방암으로 간, 폐, 골수까지 전이된 상태에서 두 달 동안 많은 양의 M3셋트를 주스에 같이 복용 후 심한 호전 반응 겪고 완치됨. 그후 4년뒤 늦둥이를 출산하여 지금 모유수유를 할 정도로 완쾌. 양호연(42세, 엘에이) 213-500-4471
간질과 약물중독	16년동안 하루에 몇번씩 간질을하여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은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함, 간질중독도 호전됨. 복용 후 190kg가 125kg로 되고 시력, 피부, 머리카락 좋아짐. 오윤희(26세, CA가디나) 213-604-1992
직장암, 대장암 말기	처음에 수술이 불가능하였으나, 복용 후 대장속에 있었던 숙변이 피와 함께 쏟아지면서 몸에 있던 큰 혹들이 줄어들며, 복용 후 6개월 후에는 깨끗하게 치료됨. 이순남(77세, 엘에이) 323-533-0624
심한 아토피	6년동안 심한 아토피로 고생이 심했는데 복용 1개월 후 부터 피부가 깨끗해지며 잠도 잘 자고 키도 많이 컸고 정신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었음. 에스터 양(10세, 산타모니카) 213-215-6991
대장암	대장암 초기판정을 받았고 병원 치료를 받던 중 M3셋트를 먹기 시작, 수술하지 않고 복용 석달 후 완치 되었음. 한국 010-7928-7986
비만, 우울증, 아노증	어려서부터 심한 비만으로 11세에 체중이 190파운드 였으나 셀라케어 복용 2달후부터 살이 빠지기 시작 하면서 현재는 130파운드로 유지됨. 우울증, 아노증이 깨끗하게 치유 되었음. 샘 양(15세, 엘에이) 213-219-7746
심한 당뇨, 고혈압	30년전 고혈압과 당뇨로 매일 약을 먹던 중 M3셋트 복용 후 4개월이 지나면서 혈압과 당뇨가 정상으로 되었고 절단전전의 다리와 온몸의 검은 피부가 회복되었음. 오일동(52세, 가디나) 213-258-5321
심한 알러지, 우울증, 불면증, 녹내장	코막힘과 콧물로 밤을 새우는 고통 중 M3셋트 복용3일 후 완치. 심한 심장 압박과 하지정맥까지도 치유됨. 정수지(61세, 베버리 힐) 310-800-8242
심장병, 담석, 전립선	10년 동안 고혈압과 밤마다 잤은 빈도와 다리가 저려서 고생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약성 빈혈과 혈압이 정상으로 되고 담석으로 인한 고통도 사라졌습니다. 마사루(58세, 부산)
심한관절염, 변비, 생리통	손가락이 심하게 아파 소염 진통제로도 잘 안들었으나 셀라케어로 통증이 가셨고 변비도 해결 되었으며, 큰 딸의 생리통과 우울증도 사라졌음. 황정희(39세, 팔로스버디스)
중풍마비, 당뇨, 고혈압	15년 동안의 고혈압, 당뇨를 딸의 권유로 셀라케어 복용 후 7개월 만에 고혈압, 당뇨, 왼쪽 마비도 정상 회복됨. 민현재(65세, 방배동)
등 수술후 심한 손떨림	바이러스 침투로 인한 등 수술 후 8년 동안 심한 손 떨림으로 고생중, 복용 일주일 후 부터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손 떨림이 없어지고 안정됨. 박성섭(63세, CA 토렌스)
자폐증	가족과 의사 소통이 되지 않으며 손발이 항상 차고 손 발끝이 너무 같이 딱딱 했는데 복용 열흘 후 부터 손발이 따뜻하고 부드러워 졌으며, 가족과 의사 소통이 가능 해지고 상태 좋아짐. 정대진(16세, 엘에이)
혜장암 말기	60세 중반에 가장 힘들다는 혜장암 말기로 병원에서 두 달 시험부 선고를 받고 M3셋트를 복용하고 2개월이 지나면서 부터 기적적으로 혜장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음. 피터 리(65세, 엘에이)
폐암 말기	50세에 찾아 온 암으로 고통 받던 중 복용한지 한달 20일 후 부터 암 수치가 3.5cm에서 1.2cm로 작아지면서 좋아지기 시작하여 5개월 후에는 암 크기가 30%로 작아졌음. 이정수(51세, 서울)
자가 면역 질환	희귀병으로 부종, 부분적인 감각 상실, 지속적인 종기, 결국은 폐가 굳어지는 불치병으로 M3복용 3일 후 피검사 결과 혈액수치 정상으로 나온 후 한달 복용 후 모두 정상으로 돌아옴. 미세스 콕(뉴저지)
모유 아주적음, 심한부종	모유수유가 안되어 애를 먹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모유가 더 잘 나오며 심했던 부종이 눈에 띄게 좋아졌으며, 신생아기도 번을 잘 보고 잘 자고 푹들해졌음. 이은영(32세, 세리토스)
혈액투석	1주일에 3번씩 2년 6개월동안 혈액투석 해 왔는데, 2달 복용 후 혈액투석 횟수가 점점 줄었고, 지금은 혈액투석을 아니함. 장영순(53세, 한국 서울)
중풍으로 인한 마비	심한 중풍 후유증으로 고생하며 인생 말년에 찾아온 병으로 비관하며 졸다는 말을 찾던 중 M3셋트를 알게되어 복용 한지 3개월 후부터 서서히 중풍으로 인한 마비가 풀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있음. 김정훈(76세, 한국 대구)
임파선암	2년전 임파선 암 수술했음, 셀라케어 복용 후 한 달 20일만에 왼쪽 가슴 유두에서 피고름이 나왔으며, 지금은 키모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회복 됨. 조인숙(53세, 시카고)
갑상선암과 심한 관절염	13년동안 심한 관절염으로 신문 한장도 옮기기 어려웠고 밤에는 불면증으로 고생, 셀라케어 한달 복용 후부터 심했던 통증이 차차 가라 갔고 갑상선도 정상으로 회복 되어짐. 김정연(39세, 다이아몬드 바)
전립선암과 부정맥	소변이 힘들고 밤에는 7번씩 소변보았으며,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 하였음, 복용 2달만에 밤에 화장실 가지 않게 되고 혈액 검사 때마다 혈관 찾기가 힘들었으나 지금은 혈액 흐름이 원활하여 계속 복용하고 있음. 필립 남(72세, 벨리)
파킨스 병	3일 복용 후 몸이 가벼워지며 계속 복용하면서 자유로운 외출과 친양 사역자로 다시 일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지금은 외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됨. 브라이언 김(70세, 버지니아)
반신불수	목사님 이었고 5번의 뇌수술 후 반신불수가 되었는데, 복용 2개월만에 지팡이도 버리고 걸었다고 있음. 왼쪽 마비도 많이 풀렸음. 최정석(50세, 엘에이)

건강과 성경이야기 1

안녕하세요 오늘은 첫번째 시간으로 요즘 한인사회에서 화제가 되고있는 기적의 영양제 M3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용하신 많은 분들이 M3영양제를 왜 기적의 영양제라고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날까지 시련에서는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건강하면 80이라고 합니다. 또한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합니다.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사시다 가지지 않겠습니까?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였습니다. 우선 건강하시려면 우리의 몸이 무엇으로 구성되어있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선조들은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라고하였고 요즘 과학자들도 흙과 사람의 원소가 신비하게 같다고들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은 산소, 수소, 질소, 탄소와 함께 황철분인 미네랄, 칼슘 인, 유황, 염소, 불소, 마그네슘 등등등 약 80여가지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칼슘은 다 아시는 것과 같이 뼈와 치아 등등에 관여하고 인은 모발에 규소는 손톱에 염소는 간장 쓸개 콩팥의 청소제라고 할 수 있고 마그네슘은 혈액 등에 관여합니다. 그러니까 손 발이 저리신 분들은 마그네슘의 부족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마그네슘을 보충해주면 그날로 손발저린 것이 없어집니다. 마그네슘은 또한 혈액을 잘 움직일수 있게 해 주므로 심장병 간질 손발 저림등에 좋고 혈액순환에 아주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그네슘을 먹을 수 있었습니까? 흙을 파먹을수도 없는 것이고, 방법은 마그네슘을 빨아들이는 식품을 먹으면 되는 데 요즘은 공해와 산성비 등으로 인하여 1980년도에 한 단판 먹어도 되었던 시금치를 지금은 약 20단을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불가능해보입니다만 다행이도 미국과 몇 나라에서는 식물에서 이러한 물질을 분리수거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식물에서 분리수거 하여 종류별로 자루에 넣어두었다가 필요할 때 필요한 양 만큼

무료건강상담 문의 213-435-9600

셀라케어 제품은 유태인 코셔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미국제품으로 미국 FDA인증의 GMP생산품입니다. www.sellacare.com

본사(LA)	213.435.9600	뉴욕	201.953.0022	LA 사랑방	213.351.9552	뉴서울 호텔(팔달)	714.537.6619
오렌지카운티	714.795.1540	버지니아	703.684.9199	가든그로브 건강마을	714.636.2588	LA벌론 마틴약국	213.382.9718
시온약국	213.382.6485	시애틀	206.331.6655	시온마켓 내 시온헬스	714.730.2707	LA벌론 갤러리아마켓약국	213.388.4100
LA 아드모아약국	213.385.2135	LA 다운타운	213.798.3333	세크라멘토,아리조나	602.332.6492	글렌데일 한국마켓 약국	818.637.7708
LA 한국마켓약국	323.464.3925	밸리	818.642.8223	센루이스, 캔사스	314.570.9629	늘웁 H 마트 리빙헬스	562.402.8859
LA 베스트약국	213.385.9926	밸리 소망 약국	818.832.2757	하와이(생약촌)	808.947.8086	다이아몬드바 JJ 약국	909.595.4003
우리약국	213.384.6323	얼바인	949.330.9009	하와이 총판	808.359.3376	H 마트 내 H 헬스(다이아몬드바)	909.594.6370
예스약국	323.733.7788	랜초쿠카몽가	909.987.9500	LA내처영양센터	213.739.8874	H 마트 내 H 헬스(어바인)	949.251.0193
올림픽갤러리아마켓약국	323.733.7200	에나하임	714.469.5809	플러튼 내처영양센터	714.690.0120	그린마켓 내 그린랜드 건강헬스	626.839.2868
부에나파 종로의료기구	714.530.8275	로렌하이츠	626.912.5727	세리토스 그린라이프	562.402.6970	가주건강종합백화점	213.388.0091
가디나	714.351.0440	LA시온마켓एम사약국	213.739.3030	플러튼 베스트케어약국	714.670.7979	캐나다	714.636.2588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15:7)

오하이오 주 “동성결혼 불법이지만 타주 결혼은 인정” 판결 예정

“오하이오 주는 타주에서 이뤄진 동성결혼을 인정하라”고 판결하겠다고 연방법원 판사가 공언했다. 토모시 블랙 판사는 오는 4월 14일까지 그렇게 판결할 것이라 말했다.

현재 오하이오 주는 2004년 주민 투표에서 61.71%의 지지를 얻어 동성결혼이 헌법으로 금지돼 있다. 그러나 타주에서 발급받은 동성결혼 증명서를 오하이오 주에서도 인정하라는 말은 곧 동성결혼 합법화와 동일한 말이다.

블랙 판사는 “헌법 제14조에 명시된 평등권”을 근거로 이런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캘리포니아 주 등지에서 동성결혼 증명서를 발급받은 원고들이 낸 소송에 대해 블랙 판사는 “오하이오 주에서도 동성결혼을 시행하라”고 판결하

진 않는다. 다만 타주에서 합법적 결혼자의 지위를 누렸다면 오하이오 주에서도 누려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는 것이다.

현재 지난해 12월 뉴멕시코 주가 미국 내에서 17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이후 미국 내에서 동성결혼 허용 주의 수는 쉽사리 늘고 있지 않다. 과거 한달 사이에 2-3개 주가 줄줄이 동성결혼 합법화 입법과 판결을 내어놓던 것과는 상반된다.

그러나 이미 연방법원은 유타, 오콜라호마, 버지니아, 텍사스, 미시건 등에서 동성결혼 금지법을 폐지시켰다. 다만 각 주정부가 항소하면서 그 효력이 일시 중지된 상태일 뿐이다. 만약 항소 판결만 나오면 5개 주에서 한번에 동성결혼이 합법화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캔터키와 테네시, 오하이오 주에서는 타주의 동성결혼 증명서를 인정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타주의 동성결혼을 인정하라는 말은, 결국 동성결혼 합법화와 동의어에 가깝다. 이주에 거주하는 동성애자들이 타주에서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다시 원 거주지로 돌아오면 이들은 해당 주에서는 불법인 동성결혼 상태를 합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불법이지만 합법적인 그런 부부 지위를 얻게 된다. 이는 현실적으로 동성결혼 합법화와 다를 바가 없다.

연방법원이 내릴 이 판결에 대해 동성결혼 지지측은 “동성결혼 금지가 위헌이라고 판결하라”고 촉구하고 있으며 주 정부는 “판결이 나오는 대로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영신 기자

미시시피에서 종교자유회복법 통과 성소수자 그룹 반대

4월 1일 미시시피 주의회를 통과한 종교자유회복법(SB2681)에 대해 필 브라이언트 주지사는 서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법은 정부가 주민들의 종교적 행위를 금지하거나 강요하거나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성소수자들로부터 고소당하는 종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어 성소수자 그룹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이 법에서 가장 극명한 반대에 부딪히는 부분은 “종교적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에 상반되는 행위를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전 미국적으로 동성애에 반대하는 신앙인들이 동성애자들의 결혼식에 케익, 사진, 결혼장소 대여 등을 거부했다가 소송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이 법안은 사실상 미시시피 내에서 신앙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종류의 법안은 조지아, 아이다호, 메인, 오하이오 등 다수의 주에서 추진됐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애리조나 주에서는 주의회를 무사히 통과한 이 법에 쟀 브루어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며 막판에 좌절된 바 있다. 현재 미시시피 주에서는 동성결혼을 헌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시민결합이나 동거인 자격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2003년 연방대법원에 의해 소도미 법이 폐지된 이래, 동성간 성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

제스민 비치-페라라 목사는 “이 법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증가시키고 합법화 할 것이다”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패밀리리서치카운슬의 토니 퍼킨스 회장은 “수정헌법 제1조의 승리이며 자신의 양심에 따라 살 권리의 승리”라고 치하했다.

김영신 기자

릭 워렌 “정신건강 사역 통해 어려움에 대처하는 법 나누길”

약 1년 전 아들 매튜가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한 후, 릭 워렌은 매일 슬픔 속에 잠겨 있는 자신을 봤다.

27년이 넘게 정신 질환을 앓은 매튜의 고통과 매튜와 작별 후 자신과 아내 카이가 느낀 상실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을 찾기 위해, 그는 일기를 쓰며 밤을 보냈다.

워렌은 문제가 있었으나 친절하고 부드러운 동정심 많던, 내내를 왜 데려가셨는지 하나님께 물었다. 그는 “방 안에 있는 자들 중 누가 가장 고통스러우니, 누가 가장 불편해 하는

지를 알아챌 수 있는 재능을 지니고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너무도 끔찍한 일로부터 무언가 선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길 기도했다.

아들의 첫 번째 기일을 8일 앞둔 28일(금) 미국 내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교회 중 하나를 이끌며 알콜 중독, 약물 중독, 고아 돌봄과 HIV/AIDS에 대해 널리 알려진 워렌 목사가 새로운 사역의 장을 열었다.

캘리포니아 레이크포레스트에서 28일 하루 동안 열린 ‘교회와 정신건

강 회의’에 3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목회자, 연구자, 정신과의사들이 패널로 섰으며 교회 안에 존재하는 자살과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을 지우기 위해 기도했다.

워렌은 허핑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매튜가 살아 있을 때 쓴, 그의 사후에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된 일기의 도입부를 떠올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정원 안에서는, 다친 나무도 열매를 맺는다”고 말했다. “엄청난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과정을 통과할 수 있으며, 그 경험을 다른 이

를 돕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새들백 교회가 로마가톨릭 오렌지 카운티교구의 케빈 밴 주교, 전국정신질환자연맹과 함께 주최한 28일 컨퍼런스는 교회 내 정신건강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한 장기 캠페인의 첫 단계로, 앞으로 “기독교와 우울증”, “교회 내 돌봄 그룹과 상담 사역을 시작하는 방법”, “자살 예방: 한 번에 한 공동체의 여러 생명을 지키기”, “음식과 몸: 공동체를 통한 식이장애 치료 단계” 등을 다룰 예정이다.

워렌은 “당뇨병에는 아무 부끄러움이 없다. 고혈압도 그렇다. 그런데 두뇌가 작동을 멈추면 왜 부끄러워해야 하는가?” 라고 물으며, 매튜의 병이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아들 자신이 얘기해야 할 이야기이기도 대중들에게 비밀로 했다고 말했다.

워렌은 “그가 숨을 거둔 후, 공격적인 사람으로서 슬픔을 공개적으로 표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 그것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공개서한을 통해 작년 4월 매튜의 죽음을 알렸고 이후 수만 통의 답장을 받았다. “지금의 나는 1년 전과 같지 않다. 훨씬 생각이 깊어졌고, 더 많이 공감할 수 있게 됐다.”

정신질환과 자살이 신자와 비신자들 모두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세간의 이목을 끄는 몇 건의 비극으로 복음주의 공동체 안에 이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썩었다.

12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영적인 조연자 중 하나이며 올랜도의 대형교회 목사인 조엘 헌터의 아들 아들 아이작 헌터(Issac Hunter)는 36세 나이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같은 달, 공동의선을위한새로운복음주의파트너십(New Evangelical Partnership for the Common Good)의 대표이며 전미복음주의협회의 대정부관계담당자 리처드 시직(Richard Cizik)의 아들이 버지니아에 있는 그들의 집에서 헤로인 과다복용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작년 11월, 조지아 주 메이컨에 위치한 비브시온산침례교회(Bibb Mount Zion Baptist Church)의 테디 패커 목사의 자살 사건은 미국 언론에서 헤드라인으로 다뤄졌다. 여름 이후에는 남침례회 전 대표 프랭크 페이지(Frank Page)가 2009년에 스스로 생을 목숨을 끊은 자신의 딸에 관한 책을 출간했다.

종교 공동체 밖에서도 정신 질환과 자살에 관한 뉴스는 점점 더 흔한 일이 되고 있다. 올해, 금융계에서 일어난 연이은 자살사건(2월 18일 JP모건 홍콩 본부 직원의 자살을 비롯해 케네스 벨란드 Kenneth Bellando, 에드먼드 레일리 Edmund Reilly, 어텀 래드키 Autumn Radtke 등 금융계에 종사하는 여러 인물의 자살이 잇달았다)은 기업전문가들과 정신건강 전문가들을 당황하게 했다. 작년 질병관리및예방센터에서는 처음으로 미국인 중 자살로 목숨을 잃는 수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수를 넘어섰다 고 발표했다. 같은 보고서에서 1999년과 2010년 사이 35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들의 자살율이 거의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 정신

건강학회의 통계에 따르면, 성인 약 4명 중 1명은 정신질환을 앓는다.

그러나 워렌은 복음주의자들 가운데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다고 말했다. 9월에 발표된, 남침례교 산하 비영리기구 라이프웨이서치의 조사에서, 복음주의자, 근본주의 크리스천, 거듭난 크리스천들의 절반 가량이 기도와 성경공부만으로 정신 질환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인 전체 약 3분의 1이 이런 관점을 지닌다. 그렇지만 미국인 68퍼센트는 그들이 정신적으로 병들어, 교회로부터 환영을 받을 것이라 믿는다고 답했다.

가톨릭 우울증 안내서(The Catholic Guide to Depression)의 공동저자이며 28일 새들백 교회에서 강연한, UC 얼바인 의학대학원의 정신과 부교수인 애런 케리어티(Aaron Kheriaty)는 “신앙, 종교적인 믿음이 정신 질환에 대한 면역력을 길러주거나 예방시켜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정신과의사들과 우리 모두가 함께 일할 수 있다는 확신을 크리스천들에게 심어줄 길 원한다.”고 했다.

워렌은 새로운 정신건강 사역이 모든 종류의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관해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모든 이는 삶 속에서 상실을 경험한다. 슬픔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어떻게 어려움을 지나올 수 있는지에 관한 변화 없이는 성장할 수 없고 상실을 겪지 않고서는 변화할 수 없다.”

“내 말은, 매일 ‘매튜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어떨까’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왜’냐는 물음은 잘못된 게 아니다. 예수님조차 십자가에서 ‘왜’냐고 물으셨다. 답을 얻을 수 없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인생에는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

이 컨퍼런스에서 강연한 카이 워렌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8만 명이 댓글을 달고 “좋다”고 평가한 그의 메시지에겐 천천히 생각해도 괜찮다는 것과 친구들과 종종자들에게 자녀의 죽음이 부모의 관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더 이해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는 “애도자들은 빨리 그 사건에서 벗어나, 고비를 넘어서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남겨진 것에 감사하라. 그리고 또 다른 아이를 갖으라는 말을 듣는다. 또, 다른 불친절하고 냉정한, 둔감하며 더할 수 없이 잔인한 말을 듣는다”고 썼다. “우리는 죽음, 비탄, 슬픔, 상실로 매우 괴로워하거나 자기에게 너무 몰두한 나머지 부모와 남은 자녀들이 받게 되는 그 상실로 인한 엄청난 고난을 쉽게 망각한다.”

후에 그는 “2013년 4월 5일은 우리에게 영구적인 흔적을 남겼다. 그것은 앞으로 알 수 없는 시간 동안 우리가 지나갈 모든 것에 자국을 남겨 놓을 것이다. 아마도 영원히”라고 덧붙였다. 주디 한 기자

베스트 셀러 "영어 훈련소" (김영사) 저자 하득희 교수의 기적의 영어회화

베스트 영어훈련원

제 28기 훈련생 모집

- 영어. 말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 회화 3년 과정을 3개월에 완성하는 영어 훈련원
- 오랫동안 영어회화의 전문가들에 의해 입증된 방법을 최초로 교육화한 훈련원

LA 한인타운	플러튼	얼바인
훈련기간 2014년 4월 21일(월) ~ 7월 9일(수) 주 3회 (월화수반/ 토요반) 훈련시간 주중반: 오전 10:30~12:10 저녁 7:30~9:10 무료설명회 2014년 4월 21일(월) 오전 10시30분, 저녁7시30분 훈련장소 LA 베스트 영어 훈련원 3251 W, 6th, #101 LA, CA90020 (6가 + 뉴험프서) 등록비 580불(일시불, 교재비 포함) 접수 설명회 당일	훈련기간 2014년 4월 23일(수) ~ 7월 12일(토) 주 3회 (월화수반/ 목금토반) 목금토반 : 오전 10:30 ~ 12:10 월화목반 : 저녁 7:30 ~ 9:10 2014년 4월 23일(수) 오전10시30분, 저녁7시30분 1309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Brookhurst & Euclid 사이) 580불 (일시불,교재비 포함) 설명회 당일	훈련기간 2014년 4월 18일(금)~7월 16일(수) 주 1회 (종일반) 수요일: 오전 10:00 ~ 오후 2:30 2014년 4월 18일(금) 오전 10시 4790 Irvine Blvd #203 Irvine, CA 92620 (시온마켓 옆 사이닝 학원내) 580불 (일시불,교재비 포함) 설명회 당일

훈련대상

- ▶ 오랫동안 공부했으나 영어회화가 잘 안되는 분
- ▶ 직장생활과 비즈니스 하는데 영어회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분
- ▶ 미국사람만 보면 겁이나고 말이 안나오는 분
- ▶ 다 아는 내용인데 말이 안되는 분
- ▶ 라디오, TV가 전혀 안 들리는 분
- ▶ 미국식 발음과 문법에 자신이 없는 분

기적의 영어회화의 특징

LA 제 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기 훈련생들 격찬! 또 격찬!

뉴욕 한인들로부터 확실한 검증/뉴욕 한국일보 기자가 직접 참석을 통해 "바로 이것이다" 격찬
 타운뉴스 기자 직접 훈련 후 격찬 / LA 다양한 분들 훈련 후 찬사
 " 영어 훈련소" <김영사> 세종문화회관에서 출판 강연회 폭발! 1년 해외 연수보다 더 효과적인 곳!

기적의 영어회화의 방법

- ▶ 가장 쉽고 단순하게 영어에 자신감을 갖는다.
- ▶ 중학교 1,2 학년 영어교과서를 읽을 수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
- ▶ 눈으로만 해오던 영어방식을 입체적 방식으로 대 전환
- ▶ 분석하지 말고, 단순히 영어에 자신감을 갖는다.
- ▶ 공부하지 말고, 훈련하라!
- ▶ 책한권을 끝냈다고 방심하지 말고, 그냥 자주 반복하라!
- ▶ 음성학적인 원리를 터득함으로써 발음문제 해결
- ▶ 단순 반복으로 문장이 생각과 동시에 흘러나온다.
- ▶ 시각, 청각, 구강근육운동을 통해 뇌를 입체적으로 자극하는 학습
- ▶ 억지로 외우려 하지 말고, 그냥 자주 반복하라!
- ▶ 뇌리에 영어 코드를 만들어라!
- ▶ 시간을 길게 잡아 지쳐 포기하지 말고,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한국영어훈련소의 폭발적인 인기와 성과, 교육수료자들의 생생한 증언은 하득희저음 영어훈련소(김영사)와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www.spiritenglish.com cafe.godpeople.com/spiriteng

베스트 영어훈련원 (213)239-4815

<3단계 영어> Three-Level English Education(36)

English Beginning Level (초급영어 36회)

Do you need a job?
당신은 직업을 원하십니까?
Yes, I do. I need money.
네, 그렇습니다. 나는 돈이 필요합니다.
What kind of job do you want?
어떠한 일을 원하십니까?
I want to work at a restaurant.
나는 식당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What do you want to do at the restaurant?
식당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I want to be a waiter.
웨이터를 하고 싶습니다.

English Intermediate Level (중급영어 36회)

In Jerusalem during the Passover many people put their faith in Jesus, because they saw him work miracles.
God loved the people of the world so much that he gave only Son, so that everyone who has faith in him will have eternal life and never really die.

유월절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하여 믿음을 가

지게 되었다.
하나님께서서는 세상을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하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며 결코 죽지 않게 된다.



배효식 교수
미국침례신학교

English High Level (고급영어 36회)

He was wounded for our transgressions, he was bruised for our iniquities; upon him was the chastisement, that made us whole, and with his stripes we are healed.
All we like sheep have gone astray; we have turned everyone to his own way; and the Lord has laid on him the iniquity of us all.

그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찔림을 당했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입었고, 그가 징벌을 받으므로 우리를 흠이 없도록 하였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가 낫음을 받았다. 우리는 모두 양갈아서 길을 잃고 모두가 자기 길로 가버렸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계속)

종교에서 멀어지는 미국인, 인터넷이 원인?

지난 20년 동안 대학 교육과 인터넷 사용의 증가로 인해 미국인들이 종교에서 급격히 멀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메사추세츠의 올린 칼리지 컴퓨터과학자인 알렌 다우니(Allen Downey) 박사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종교에 흥미가 없다고 응답한 미국인들의 비율은 지난 1990년 8%에서 2010년 18%로 늘어났다. 동시에 개신교의 비율은 1990년 62%에서 2010년 51%로 줄었다. 가톨릭과 유대교의 경우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기타 종교는 3.3%에서 4.2%로 증가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종교적 소속, 교육과 인터넷 사용'이라는 제목으로 4일(현지시각)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 실렸다.

이 수치는 1972년 이후부터 미국인들의 태도와 인구 통계를 측정하는 GSS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조사 내용에는 "여러분의 종교적 선호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종교적인 배경에서 자랐습니까?"라는 질문도 포함돼 있다.

연구에 따르면, 종교적인 선호도를 갖지 않은 미국인들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과 마

찬가지로, 개신교의 비율, 인터넷의 유행과 학교 교육 역시 증가했다. 연구는 인터넷 사용의 증가가 0%에서 거의 80%까지 늘어난 것을 보여준다. 대학을 졸업한 인구의 비율은 17%에서 27%까지 늘었다. 연구는 또한 종교적인 인구가 감소한 원인을 찾고, 그들의 범위를 특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1980년대와 2000년대 사이 종교적 양육의 감소는 종교에 소속된 미국인들의 감소 수 전체의 25%를 차지했다. 이는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양육된 사람들이 이후에 종교에 소속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다우니 박사는 "종교적 소속감이 감소세를 보인 사람들 중 20%는 인터넷 사용이 늘어났다"며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다른 종교(그리고 무교)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이들과 개인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 사용은 종교에 관심을 가질 기회를 찾아가 버린다"고 했다. 대학의 졸업자는 종교적인 선호도가 줄어든 사람들 중 5% 정도를 차지한다.

강혜진 기자

IT기업 CEO의 자격- 동성결혼 찬성해라?

웹브라우저 파이어폭스를 개발한 모질라의 설립자인 브렌던 아이크가 동성결혼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여론의 폭격을 받고 열흘 만인 지난 3일 CEO에서 물러났다.

그가 CEO로 임명된 후, 동성결혼 지지자들은 아이크가 2008년 캘리포니아 주의 동성결혼금지 주민발의안인 프로포지션8을 지지하며 1천 달러를 후원했다는 사실을 들어 파이어폭스 거부운동을 벌였다.

자바스크립트를 개발하고 모질라를 설립

김나래 기자

프로지, 당뇨병과 전립선 질환 치료에 효과적

美 당뇨 연구계의 권위자 송문기 박사가 개발한 프로지(Pro-Z)

미국 당뇨 연구계의 권위자로 알려진 송문기 박사가 개발한 프로지(Pro-Z)가 당뇨병은 물론 전립선 질환 치료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가 아연 신진대사를 활용해 개발한 이 제품은 미국에서 뉴트라슈티컬(준의약품)로 분류돼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중에 있다.

프로지는 근육 세포의 대사 및 체장 베타 세포의 인슐린 반응도가 아연과 깊게 관련된다는 사실에 주목해 개발됐다.

아연은 생체활동에 필수적인 무기질이다. 인체는 뇌, 간, 근육, 전립선 등에 약 1.5~2.5g의 아연을 함유하고 있는데, 특히 전립선에는 매우 짙은 농도로 함유되어 있다고 학계에서 밝히고 있다. 인체에 필요한 아연을 섭취하려면 음식물에 함유된 유기체 유기아연을 섭취해야 하는데, 아연이 인체에 머물게 되면 인슐린을 생산하는 체장 베타세포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전립선 내 아연도 보충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 추출물과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漸) 합성물질로 구성됐다. CHP는 체내 아연흡수를 크게 증가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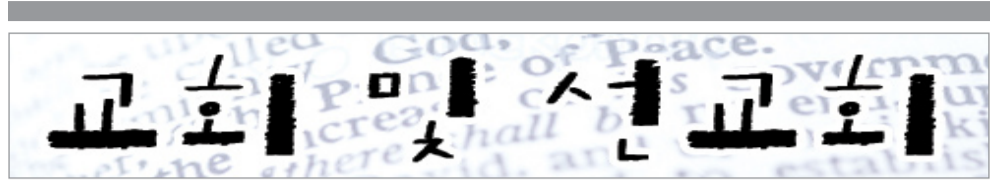
키는 물질로, 프로지의 신 합성물질은 체내에 아연이 머무는 시간을 대폭 향상시키고 있다.

따라서 아연의 흡수를 개선이라는 부분에서 당뇨병환자뿐 아니라 전립선으로 인해 고민하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프로지는 아연과 크롬 성분으로만 구성돼 있는데, 크롬은 아연의 섭취 및 인슐린의 보조인자로 작용하는 원소로 알려졌다.

송문기 박사는 대전출신으로 1959년 도미해 하와이대에서 생화학을 전공하고 인디애나 대학에서 의학유전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당뇨치료 9개, 북부비만 2개, 알츠하이머 2개 등 총 13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송 박사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 국립보건원(NIH) 산하 바이오메디컬분야 논문검색분야에서 1위와 2위, 6위에 오른만큼 세계 과학계에서 인정 받고 있다. 프로지는 현재 미국에서 LA를 중심으로 사이클로지라는 이름으로 뉴트라슈티컬에 분류되어 판매되고 있다.

> 미주 판매문의 : 213-434-1170

박창민 기자



LA 지역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션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1부예배 오전 8:00 성인 E모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4부예배 오후 1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1925 Wilshire Blvd. LA / T. (213) 383-2600 (213) 413-1600
임시예배처소 3119 W. 6th. LA, CA 90020 bopeendo.org

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월-토)
저녁 오후 7:30(화,목,금)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203 L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1부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00 2부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예배 저녁 8:00

정우성 담임목사

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1부예배 오전 7:45 E모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 오전 6:30(월-금)
오전 10:30(수) 오전 6:30(토)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

김광삼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2: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성경공부 주일오전 11:00

김요섭 담임목사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crdm.org

주일 예배 오전 11:00 삼일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찬양예배 오후 1:45 E.M.예배 주일오전 11:00

이영 담임목사

라성빌라델비아교회
하나님 중심 생활/ 말씀 중심 생활/ 교회 중심 생활

3240 Wilshire Blvd. #265 Los Angeles, CA 90010
T. (714) 319-2234

주일예배 오전 9:00 교회학교 주일 오전 9:00
E.M.예배 주일 오후 11:0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목요찬양예배: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399-7949 / www.smkc.us

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

김광삼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2: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성경공부 주일오전 11:00

김요섭 담임목사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crdm.org

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

김광삼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2: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성경공부 주일오전 11:00

김요섭 담임목사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crdm.org

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

김광삼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2: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성경공부 주일오전 11:00

김요섭 담임목사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crdm.org

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

김광삼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2: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성경공부 주일오전 11:00

김요섭 담임목사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crdm.org

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

김광삼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2: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성경공부 주일오전 11:00

김요섭 담임목사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crdm.org

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

김광삼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2: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성경공부 주일오전 11:00

김요섭 담임목사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crdm.org

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

김광삼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2: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성경공부 주일오전 11:00

김요섭 담임목사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crdm.org

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

김광삼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2: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성경공부 주일오전 11:00

김요섭 담임목사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crdm.org

교회미션교회

LA 동부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EM)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박혜성 담임목사

남가주헬로십교회
순전한 말씀으로 열매맺는 진리의 공동체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cus.com

주일예배 오전 1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성경공부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토요일합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성일 담임목사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T. (760) 220-3263, (760) 542-936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후 12:50
4부회침례부예배 오후 12:5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sunhanchurch.com

1816 S.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965-3443 / F. (626) 965-0404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EM예배 오전 11:45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양성필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사우스 베이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30
목요일예배 오후 7:30분
새벽예배 오전 6:00(수,토)

주일오후 성경공부 오후 1:30
영아예배(EM) 오전 11:3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30

안병권 담임목사

가나교회

1201 W. 255th St. Harbor City, CA 90710
T. (310) 986-9797 / ganachurch.hompe.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기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되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ou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EM 1부 9:45/2부 11:45
중/고예배 오전 11:45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45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망할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의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강영석 담임목사

성화장로교회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el. (310) 515-1191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신통(通)하고 인통(通)하며 문명(通)하여 민사형통합시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이중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15(EM) 청년부
5부예배 오후 3:00(EM) 청년부

장애유아예배 오전 10:00
Toddler - Youth 오전 11:3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김바울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세교부반 오후 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7:00(토)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점심예배 오후 2:00

EM예배 오전 9:30/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이성현 담임목사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2:00
아동부예배 오전 11:50
학생예배 오후 12:00

수요중보기도회 오후 7: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최상훈 담임목사

벤추라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8:00(세리투스채움)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세리투스채움)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벨리채움)
목요영성집회 오후 7:45(다우니 채움)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벨리채움)

최희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5711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818) 363-5887 / in-christcc.org

EM예배 오전 10:00
스페인어예배 오전 10:00
한국어 오전 10시(필로우쉽)
오후 12:00(분반)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신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퀸즈장로교회 청년부 부흥회 “비겁한 제자가 되지 말라”



퀸즈장로교회 청년부가 주관하는 부흥집회 'Shall We Love?'가 2일부터 4일까지 열렸다.

퀸즈장로교회 청년부가 주관하는 부흥 집회 'Shall We Love?'가 임흥섭 목사(김스웨이교회)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2일부터 4일까지 퀸즈장로교회 대성전에서 진행됐다.

“너희가 주라, 너희를 주라”(사61)을 주제로 열린 이번 청년부흥집회는 사순절 기간을 맞아 예수님의 제자되는 길에 대한 집중적인 메시지가 전해진 집회였다. 임흥섭 목사는 첫날 집회는 ‘병어리 제자!’(요 13:34-35, 마5:7), 둘째 날 집회는 ‘놀부 제자!’(눅15:27-32), 마지막날 집회는 ‘비겁한 제자!’(삼상17:41-49)라는 제목으로 말씀했다.

강사 임흥섭 목사는 노아라치프코칭센터 대표, 하이티 신학교 HIM 교수, 미주오엠 선교회 총무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도 코스타, GKYM 강사로 청년들에게 열정을 심어주는 왕성한 활동 중에 있다. 퀸즈장로교회를 방문한 임흥섭 목사는 청년의 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되는 길을 걷는 축복에 대해 강조하며 죽기까지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될 것을 강조했다.

임흥섭 목사는 마지막날 집회 메시지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비겁했던 나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풍성한 은혜를 받았지만 세상 매스컴이 말하는 그 생각과 사고방식으로 똑같이 행동하기도 했고, 때로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려 했던 모습도 있다. 직장상사가 일찍 가냐고 하면 ‘저는 교회를 가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세상 친구들과 함께 가지는 않는가’라면서 지난 삶을 되짚었다.

이에 임흥섭 목사는 “오늘 본문말씀과 같이 다윗은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지키고 싸우기 위해서 차근차근 제자의 도를 다해왔다. 골리앗과 같은 세상 사람들이여

리분을 향해 무엇을 하냐고 물을 것이고 역량이 무엇인지 직업이 무엇인지 물어올테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라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 믿고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임흥섭 목사는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고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한다면 우리 가슴을 찢어야 될 일”이라며 “우리가 주변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은 어떤 길이든지 간다는 증거를 얻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해드리자”고 말했다.

이어 임흥섭 목사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자신이 죽지 않고는 따를 수 있는 길이 아니다. 그런 길을 예수님은 따르라고 하신다. 가장 끔찍하고 더럽고 수치스러운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가진 목욕을 다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다. 거기까지 가는 것”이라며 “우리 형편이던지 어떤 자리에 있던지 어떤 상황이던지 따르라고 하면 따라야 한다”고 제자도에 대해 강조했다.

임흥섭 목사는 강의 중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라는 찬양을 부른 후 “3일간 집회를 했는데 밤금 찬양한 내용이 삶의 모토가 돼야 한다”면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을 아는 것이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는 물음에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3일 간의 집회는 퀸즈장로교회 청년들의 신앙이 한 차원 더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또 부흥회 기간 중인 3일 오후 5시에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성교제 및 결혼 코칭’을 주제로 특별상담도 진행했다. 임흥섭 목사는 상담을 통해 청년들이 성경적으로 이성을 사귀고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길을 조언하기도 했다.

김대원 기자

워싱턴지역 기독교장학재단, 아이티 장학금 전달



워싱턴지역 기독교장학재단이 3일 아이티 신학생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워싱턴지역 기독교장학재단(이사장 박상근)이 3일(목) 저녁 7시 애난데일 소재 팰리스 식당에서 백삼속 선교사(아이티 사랑의 교회, 사랑의 집)에게 아이티 지정장학생 2명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함께한 전우주 선교사(휴스턴)도 올해부터 워싱턴지역 기독교장학재단을 통해 아이티 신학생 2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워싱턴지역 기독교장학재단은 훈탁하고 부패되어 가고 있는 세대 속에서 자녀를 위한 신앙교육의 질실함을 깨달은 신앙있는 어머니들이 힘을 모아 청소년 교육에 사명을 갖고 공부하는 신학생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함께 활력을 주기 위해 1981년에 설립했으며, 지난 33년간 미전역에 흩어져 공부하고 있는 347명의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2009년부터는 영어권 사역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교회의 현실과 이민 2세들의 교육에 더욱더 힘쓰고자 영어권 사역자들에게 집중하고 있다. 아이티 지역 신학생들에게는 2010년 대지진 이후부터 꾸준히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 2002년 아이티의 수도 포르토프

랑스 외곽 빈빈가인 시티슬레이에서 ‘엔나’라는 여자아이를 돌보는 것으로 사역을 시작했던 백삼속 선교사(아이티 사랑의 교회, 사랑의 집)에게 아이티 지정장학생 2명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함께한 전우주 선교사(휴스턴)도 올해부터 워싱턴지역 기독교장학재단을 통해 아이티 신학생 2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서 백삼속 선교사는 “현지 신학생들이 미국이나 한국에서 2~3개월이라도 전도사 훈련과정을 받을 수 있다면 보다 세계적인 안목을 가진 목회자들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성장하고 있는 현지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이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백 선교사는 “71세의 나이에 ‘할머니’로 취급하지 않고, 은퇴 하라고도 하지 않고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감사하다.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며, “대지진 이후 많은 이들이 관심을 주고 있지만 아이티는 아직도 열악하고, 아직도 배가 고프고 가난하다.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땅이 되도록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요한 기자

2014년도 워싱턴주 부활절 연합예배 어디서 열리나?

워싱턴주 각 교회연합회, '부활절 연합 새벽예배' 일정 발표



부활절 찬양을 하고 있는 시애틀연합장로교회 성가대.

워싱턴주 각 교회연합회는 2014년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 일정을 발표하고 각 지역 교회와 성도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각 지역 교회의 부활절 연합예배는 오는 20일(주일) 오전 6시로 동일하다.

워싱턴주 각 교회연합회는 이번 부활절을 통해 성도들이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고, 교회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길 소망했다. 교회연합회는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이 시선이 빠앗기고 있음을 지적하며, 부활절을 통해 우리의 눈과 마음이 예수님께 집중하는 전환이 일어나길 바란다. 시애틀 기독교연합회(회장 최인근 목사)는 부활절 연합예배는 지역별로 4개 교회로 나눠서 드리게 된다. 린우드 에베렛 지역은 시애틀비전교회(권혁부 목사), 시애틀 북부지역은 시애틀 온누리교회(정광호 목사), 시애틀 남부지역은 시애틀 평강교회(박은일 목사), 시애틀 동부지역은 시애틀 형제교회(권준 목사)에서 부활절 새벽연합 예배가 진행된다.

▷ 시애틀비전교회 1422 112th St SW, Everett, WA 98204
▷ 시애틀 온누리교회 20150 45th Ave NE,

Lake Forest Park, WA 98155
▷ 시애틀 평강교회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 시애틀 형제교회 3727 240th St, SE Bothell, WA98021

웨드럴웨이 교회연합회 및 목사회(회장 원 호 목사)가 주최하는 웨드럴웨이 지역 부활절 연합예배는 웨드럴웨이 새교회에서 진행된다.
▷ 웨드럴웨이 새교회 33901 9th Ave., Federal Way, WA 98003
▷ 타코마 기독교 연합회(회장 이형석 목사)와 타코마 목사회(회장 정태근 목사)에서 준비하는 타코마 지역 부활절 연합예배는 타코마제일침례교회(담임 최성은 목사)에서 진행된다

▷ 타코마 제일침례교회 1328 S 84th St, Tacoma, WA 98444

올림피아지역 목회자 연합회(회장 소은일 목사)가 주최하는 올림피아 지역 부활절 연합예배는 올림피아 한빛장로교회(담임 박춘식 목사)에서 열린다.
▷ 올림피아 한빛 장로교회 4501 19th Ave S.E Lacey, WA 98503

김브라이언 기자

제13차 미주 목회자 및 사모 영성세미나 성료

제14차 세미나는 8월경에 진행, 강사는 박완중 목사



'제13차 미주 목회자 및 사모 영성세미나' 후 기념 촬영.

워싱턴 영성목회연구원(원장 임용락 목사)이 송정석 목사(한국 연합교회 당회장)를 초청해 1일(화)부터 3일(목)까지 페어팩스 소재 워싱턴 목회자 영성원에서 '제13차 미주 목회자 및 사모 영성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송정석 목사는 영성신학(영분별의 원리), 교회신학,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 하나님의 이름, 믿음의 기도, 중보기도 등에 대해 다루면서, "인간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 사탄은 돈과 땅의 것을 갖고 미혹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만들지만, 내 자의식으로 행한 것은 죄악을 만든다. 자의식 중앙에 어둠의 영이 있기 때문이다. 돈을 버리고 믿음을 가지면 하늘과 땅이 움직이게 된다. 이런 경험을 많이 해야 한다. 이렇게 믿음으로 밥을 흘릴 때 기쁨으로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장 임용락 목사는 "육의 것을 내려놓고 말씀 묵상과 기도를 꾸준히 해야하는 영성훈련이 체질화되려면 시간과 훈련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훌륭한 강사들을 초청해 세미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힘들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지면 어떤 역경과 힘들든 극복할 수 있다는 지혜를 깨달길 바란다. 마지막때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워싱턴 영성목회연구원은 8월 둘째주경에 박완중 목사(엘리 세계선교회 대표)를 초청해 '제14차 미주 목회자 및 사모 영성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 워싱턴 목회자 영성원 주소 : 3810 Meredith Dr., Fairfax, VA 22030

▷ 세미나 문의 : 703-477-8555

조요한 기자

워싱턴교협, 제4회 어린이 찬양축제 연다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회장 최인환 목사)가 차세대 어린이들에게 꿈과 소망의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 '제4회 어린이 찬양축제'를 5월 4일(주일) 오후 6시 필그림교회(담임 손형식 목사)에서 연다.

회장 최인환 목사는 "어린이 찬양 축제에 참석하는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을 돌리고 어린이들에게는 꿈과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어린이 찬양축제에 참가를 원하는 교회는 찬양곡 2곡과 신청서를 워싱턴교협

(P.O.Box 1942, Annandale, VA 22003)에 보내면 된다. 첫번째 곡은 합창, 중창, 독창 등 어떤 형식도 가능하며, 두번째 곡은 율동, 워십댄스, 악기 등으로 준비하면 된다. 2곡이 여의치 않을 경우 1곡만 결정해 참석해도 된다. 신청서는 워싱턴교협 홈페이지(www.ckcgw.org)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참가교회 지도자 모임은 12일(토) 저녁 7시 애난데일 소재 팰리스 식당에서 열린다.

▷ 문의: 571-830-8820 (박상섭 목사)

조요한 기자

O.C./앨버틴 지역

오병익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2: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건강한 교회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교회
7037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 90621
T.(714) 801-1625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7:2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00 장미연합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장년부 오전 9:00/11:00
한미대안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김영달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대학부 오후 1:30
유 초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흠어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TEL: 562-691-0691. FAX: 562-691-0698

손병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4부예배 오전 11:00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2505 Yorba Linda Bl.,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1부 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2부 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EM예배 오후 2:30

박옥덕 담임목사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거룩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6:00 분당
2부 주일 영아예배 오전 10:00 수요기도 저녁 8:00 분당
3부 주일예배 오후 2:30 금요공부 저녁 8:00 분당

허규담 담임목사

노르워크 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세우는 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el: 562(802-4959, Cell: 714) 308-7038
E-mail: usa8291@gmail.com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92802
T. (714) 999-9900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30 4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우리가 그리스도이다.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오후 12시30분 성경공부 (화) 오후 8시30분
중·고등부 오후 3시 금요일아침예배 오후 8시
청년부 오후 3시 한국학교 (토) 오전 10

방익수 담임목사

사랑의방주교회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정복하여 공동체를 살리는 교회
13955 Yale Ave., Irvine, CA92620
T. (949) 654-0191

신원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00 (토) 오전 6:00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과 은사는 성도의 삶 선교와 구원의 심으로 심힌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1부예배 오전 7:30 (분당) EM예배 오전 10:00 (FC제출)
2부예배 오전 10:00 (분당) 오후 12:30 (분당)
3부예배 오전 12:30 (FC제출)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45 (월-금) / 6:00 (토)

김민재 담임목사

세리토스장로교회
11841 E. 178th St., Artesia, CA90701 (분당)
T. 562-677-7777, F. 562-677-7778 / ilovepc.org

주일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7:00
EM영아예배 오후 12:45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금요강화예배 오후 7:30

예진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955 W Imperial Hwy Brea, CA 92821 ECCU Auditorium
(Worship Center) T. (714) 788-3677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열린예배 (수) 오후 7:30
4부예배 오후 1:30 성명집회 (매월 둘째 금) 오후 7:30

엘버틴 침례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92604
T. (949) 857-9425 / F. (949) 857-9242

최상준 담임목사 주일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엘버틴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 769-9628

김삼도 목사 광주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0:00

엘버틴 할렐루야교회
15520 Rockfield Blvd., #F Irvine, CA 92618
T. (949) 514-4346 F. (949) 305-3951

주일예배 : 1부 오전 6:00 매일 오전 6:00(화-금)
오후 7:30 오후 7:30
(매일 S,D,F, Power minister)

지사른 담임목사

열방사랑선교센터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은사로 굳건한 영혼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심리, 상담, 생애, 사명을 감동시키는 주님의 부흥심을 일으키는 선교터
9850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T. (714) 488-8291, (714) 644-1697

주일 인터레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6: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 1부예배 오전 9:15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영아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한미중고등부예배 오전 10:30
영아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영명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주일예배 오후 1:00(분당)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EM예배 오후 1:00 (pre-school) (토) 오전 6:00
주일성경공부 오후 3:00 이스라엘 세미나: 매달 첫째 주
목요성명집회 오후 7:30 (토) 오전 10:00

최국현 담임목사

은혜와진리교회
부설: 이스라엘 알리아 선교회-성지순례, 정밀전문
4000 Green Ave, Los Alamitos, CA 90720
T. (714) 351-0124 (Cell), (562) 475-4323 (Church)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9:30 목요 성경학교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명예배 오후 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성도들과는 교제 세계선교를 미루지 않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1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주일목성예배 오후 2:30 목요 성경학교 오후 7:30
월요 선교학교 오후 7:30 금요침례예배 오후 8:00
화요 중보예배 오후 7:30 토요 EM예배 오후 7:30

목회 담당 앤드류 김 목사
선교 담당 인준석 목사

작은자 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교회
1681 W Broadway Anaheim, CA 92802
Tel: 714-635-6402,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8:30 수요기도회 :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 오전 5:45(월-금)
청년예배 3부 : 오후 1:30

주희로 담임목사

주님의 빛 교회
7651 5th St, Buena Park, CA 90621 www.lordlight.org
T. (562) 896-9191, (714) 670-6700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임주자화제\$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아침, 저녁 제공 케미 tv 초고속인터넷, 냉장고, 세탁장, 교통편리

1호점: 8가 + Catalina, 정식허가
2호점: 5성급호텔의 시설 (올림픽+원저)
3호점: 최고급 5성급호텔 시설 (3가+옥스퍼드)

T. 213.327.4710

“삼자교회를 봉수교회 정도로 생각하는 건 오해”

한·중 기독교교류회, 6월 대회 앞두고 준비위원 세미나



한·중 기독교교류회 준비위원 세미나가 지난 7일 웨라튼서울 디큐브시티호텔에서 개최됐다.

한·중 기독교교류회(대표회장 박종순 목사, 이하 한·중 교류회) 준비위원 세미나가 7일 오전 서울 경인로 웨라튼서울 디큐브시티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30여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6월 14-19일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열릴 '제5차 한·중 기독교교류회'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한정국 선교사(KWMA 사무총장)가 '한·중 기독교교류회의 역사', 박봉수 목사(상도중앙교회)가 '한·중 기독교교류회의 방향',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가 '중국 선교 상황에 대한 이해'를 각각 강연했다.

앞서 김유수 목사(월광교회)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에서 박종순 목사는 '전심전력하라(딤후 4:11-16)'를 제목으로 설교했다. 박 목사는 "본문을 보면, 바울은 생명을 걸고 삶을 올 인하는 것이 전도 철학이었던 것 같다"며 "개인의 삶도 최선을 다해야 성공하고, 목회도 최선을 다해야 이벤트 중심보다는 느리더라도 우직하게 전심전력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선교도 마찬가지로 수단이 아니라 본질이고, 이벤트가 아니다"며 "선교를 왜 하는지, 이에 대한 기대치가 무엇인지 명명백백한 명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을 어떻게 선교국가로 만들고 소통할 수 있을지 연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한국교회가 혼자서는 강하고 잘 하지만 함께하는 일에 약한데, 중국과의 관계는 연합하여 함께하면서 공동 전략도 수립하고 공통 분모를 찾아 함께 기도하고 생각하고 나누는 선교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국교회 경험 함께 나눌 뿐 아니라, 배우는 자세로”

한정국 사무총장은 한·중 교류회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폈다. 한 사무총장은 “한·중 교류회는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를 전개함에 있어 역사적으로 깊은 관계가 있는 중국교회와의 동역을 통해 1990년대 초반부터 중국 중교국과 양회 지도자를 만나 친분을 쌓아왔던 박종순 목사의 헌신과 섬김으로 2003년부터 KWMA가 주도하고 한기총과 NCCK가 협력한, 명실공히 한국교회와 선교계가 연합한 교류회”라며 “이후 2006년까지 4차례 진행하면서 중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양국간 기독교 교회 및 신학·이단·선교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중요한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4년간 매년 한국과 중국에서 번갈아 열린 한·중 교류회를 요약하면서, 중국이 중시하고 관심을 갖는 분야에 대해 “원칙과 이단, 그리고 신학교육”이라고 분석했다. 한 사무총장은 “4차까지의 교류회를 살펴보면, 이러한 이야기들이 매년 주제로 등장함을 알 수 있다”며 “이러한 가운데 중국에서 열린 3차 교류회에서 김의환·김명혁 박사가 현대신학의 동향과 교회성장 분야에서 ‘성경적 선교’에 대해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한 사무총장은 “선교계는 사실 중국 선교에 있어 지하교회 위주로 사역했기 때문에 사실 박 목사님의 이러한 시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적도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 삼자교회와 중교국 간의 정식 교류는 양국간 교회의 이해 뿐 아니라 유익한 정보들이 흐를 수 있는 통로가 됐다”며 “지하교회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삼자교회도 계속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교제할 것이고, 비공식적 교제 등을 통해 삼자교회 인사들도 직접 와서 한국교회를 목격하고 교제한다면 중국교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지하교회에는 신학교가 없기 때문에 중국 신학교와 직접 접촉할 수 없었는데, 한·중 교류회를 통해 관계가 형성되는 등 정부와 관련된 수많은

기독교 기관들을 접촉할 수 있는 물꼬가 터졌다”며 “좀더 연구하고 그들의 필요를 잘 파악해서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한국교회의 경험을 함께 나눌 뿐 아니라, 배우는 자세로 중국교회를 대하면서 그들을 이해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교회, 중국 기독교에 걸림돌 노릇 해온 것도 사실”

박봉수 목사는 17년 간의 중국 교류 경험으로 현지에 흐르는 기독교에 대한 인식 등을 소개했다. 박봉수 목사는 “우리는 중국 삼자교회를 북한의 봉수교회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는 오해”라며 “삼자교회 관계자들과 대화를 해 보면 문화혁명 때 순교자들이나 핍박 받은 이들이 많음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1990년대 들어 한·중 교류의 길이 본격화되면서 한국 기독교는 중국을 새로운 ‘선교지’로 파악하고 앞다투어 선교에 힘을 쏟았는데, 중국 기독교와 대화·협력보다는 일방적인 선교에 힘을 쏟아왔다”며 “이는 일정 부분 중국 기독교가 성장·발전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많은 부분 걸림돌 노릇을 해온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특히 동북3성 조선족 교회들을 중심으로 탈북민을 도우면서 한국적 신앙의 전파에 힘을 쏟고 가정교회를 육성했지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소수민족 정책과 종교 정책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게 만들었고 중국 기독교 입장에서 오히려 기독교 발전 전략에 장애물이 되는 ‘한국 기독교의 침투’로 여기고 있다는 것.

이후에는 중국인들과 중국 기독교의 특색에 대해 언급했다. 먼저 중국 기독교는 이미 7세기 ‘경교’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자부심이 있어, 한국에서 선교를 하러 온다고 하면 의아해한다. 그리고 아편전쟁 이후 외세에 강제 개방됐는데, 이때 선교사들이 함께 들어 오면서 반외세 운동과 함께 반기독교

운동이 일어나는 등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한국과는 반대의 경우다. 그러면서 중국 기독교는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외세로부터 차단하는 ‘삼자운동’을 펼쳤고, ‘외세 종교’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토착화(본색화)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다. 또 ‘중화사상’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하다.

중국 기독교의 발전을 돕기 위한 사역 방향으로는 △중국 기독교 지도자 양성 △중국 신학의 발전 △목회 발전 경험 나눔 △중국 교회의 대사회적 활동 지원 등을 제시했다. 특히 사회봉사에 대해서는 “중국에서는 그간 기독교가 직접 사회봉사를 수행한다든지 어떤 형태로든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없었다”며 “선교사들이 다른 나라에서처럼 다양한 디아코니아와 교육이나 의료사역을 통해 선교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는데, 최근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고 전했다.

중국 사회 내에 빈부격차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고, 빈곤층의 사회적 불만도 커져가고, 장애인이나 사회 내 그늘진 곳의 갖가지 문제를 나타내면서 정부의 힘만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식하게 됐다는 것. 박 목사는 “당국은 종교가 부분적으로나마 이 일에 협력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 종교사무국은 한국 기독교가 대사회 봉사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알고 중국 기독교도 이와 유사한 기여를 해 주기를 내심 기대하면서 한·중 기독교 교류를 통해 이런 점을 배워 실천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교회, 중국 신학교육 부재 해결에 공헌하자”

최초로 종교비자를 취득해 중국을 방문하기도 했던 이영훈 목사는 경험을 토대로 현 중국의 상황을 전했다. 이 목사는 “중국 기독교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신학교육 부재에 대해 많이 느끼고 어떻게 한국교회와 협력해서 신학교육을 발전시켜야겠다고 이야기한다”며 △목회자들의 신학적 소양 제고 △성령 운동과 말씀 운동의 균형 필요 △목회자들의 리더십 및 교회의 처리 문제, 그리고 윤리 의식 함양 등을 중점 과제로 꼽았다.

신학교육과 관련, 중국은 ‘해방신학’·‘자유주의 신학’을 가장 경계한다는 견해도 전했다. 그는 “신학도 우리나라처럼 자유로운 건 아니고, 해방신학과 리버럴 같은 경우는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며 “중국에 가 보면 진보주의적인 책은 하나도 없지만, 무디나릭 워렌처럼 복음주의자들의 책들은 많이 있다”고 했다.

이 목사는 “중국 정부에서는 모두



한정국 사무총장.

컨트롤할 수 있는 종교를 원하기 때문에, 공식 교류가 활성화될수록 비공식 루트로 접근 중인 선교사들에 대한 추방과 갈등도 계속될 것”이라며 “중국의 자서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할 테니, 허락을 받고 공개적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에 따라 이제 중국 기독교는 삼자교회를 통해 정식으로 협력한다면 얼마든지 교류가 가능한데, 여기에는 현재 사역 중인 지하교회와 선교사들의 관계가 고민으로 남아 있다”며 “예를 들어 상하이에 공식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해 자리잡는 순간 모든 비공식 선교사들은 추방되기 때문에, 선교사 비자를 달지 받을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서 발생한 이단이 한국으로 침투하고 있을 정도(전능하신 하나님교회)로 중국은 이단 문제도 심각하다”고도 했다. 이 목사는 “한·중 교회가 협력한다면 세계 교회 선교와 부흥, 에큐메니칼 운동에 큰 공헌을 하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

한중 기독교교류회란

이날 준비위원 세미나를 가진 한·중 기독교교류회는 한국과 중국의 교회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상호 국가 및 교회 상황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모임으로, 지난 2003년부터 네 차례 세미나를 통해 세계 복음화의 동역자로서 미래지향적 관계를 정립해 왔다. 이들은 한·중 기독교 지도자들이 양국 기독교의 ‘동반 성장’을 논의할 창구로 ‘한·중 기독교교류회’ 설립을 합의하고, 중국에서는 종교사무국 지도자에 양회인 기독교협회와 기독교 삼자애국운동위원회를 비롯한 21개 주요 신학교 등 중국 기독교계를 총망라하는 기관들이 교류회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교류회 한국측 조직은 대표회장인 박종순 목사, 고문에 김삼환 목사(명성교회·통합)와 이도원 목사(지구촌교회·기침)와 정필도 목사(수영로교회 원로·합동), 상임대표에 류영모 목사(한소망교회·통합)와 이영훈 목사(기하성), 대표집행위원장에 박봉수 목사(상도중앙교회·통합), 자문위원에 주요 교단장과 연합단체장, 신학교(기독교대학) 총장과 NGO 단체장, 언론·신교단체장 등이 위촉됐다. 이 외에도 공동회장, 공동집행위원장, 신학·목회·기독교사회봉사·홍보출판·교류협력·의료봉사·기독교CEO·재정 분과별 조직이 갖춰졌다. 이대용 기자



GOLDEN STATE UNIVERSITY

School of Oriental Medicine

골든 스테이트 한의과 대학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전인치유 한의사가 되는길."

"가주면허 100% 합격률, 취업 훈련, 자체 유학비자 발급, 일대일 임상지도"

- 입학자격: 대학 60학점 이수한 분
- 입학: 수시 입학
- 입학문의: 562) 965-5112 / 김성일 박사 gsu_inc77@yahoo.com

부설

단기 의료 선교 훈련반

단기 의료 선교 도우미 사역 준비

양·한방, 간호사 보조 및 견학

각교회 의료선교 사역팀 훈련 의뢰받습니다.

*** 대학병원안내: 진료시간 월-금 9:00-7:00 pm 토: 10:00-3:00 pm**

경험많고 유능한 교수의료진 서비스

골든 스테이트 한의과 대학

9047 E.Florence Ave. #L. Downey, CA 90240

KOBE PEARL LAS VEGAS

무조건 현금회전 대박세일!!!

최대할인
80% +10%
더세일!

고베펄 상설 매장 오픈 기념 행사퍼레이드

“비싼 진주보석은 가라!!”

가자! 벌몬 갤러리아 마켓
고베펄 매장으로 가자!!

4월 9일(수) - 4월 30일(수)까지
고베펄 벌몬 갤러리아 매장
(5가와 벌몬 갤러리아 마켓내)

일본공법 한국세공 진주제품 5000여점 전시 특가 판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세공기술과 진주메카인 일본공법으로 제작된 화려하면서도 단아한 디자인의 신제품 진주 보석류 전시 특가판매. 경제적이면서 화려한 천연양식진주 부터 최고급 품질의 아코야, 남양진주, 타히티 흑진주 등 4000여점의 진주보석을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5월 1일(목) - 2일(금)까지 2일간
엘에이 한인타운
로텍스호텔 2층 연회장

5월 3일 (토) 단하루
가든그로브
라마다호텔 2층 연회장

300불
이상 구매시
선착순증정

행운의
복돼지 증정

(.925 Silver 정품 3돈)

★ 수량의 한정상 1인 1팀 복돼지 1개 증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BIG SALE

일본산 인공 핵진주 \$88 컬렉션
무조건 원가대행진

일본산 인공 핵진주?는 진주가루와 대왕조개껍을 분쇄하여 진주원형을 만들어 인위적으로 남양진주 색상을 입혀준 일본에서 제작되는 프리미엄 인공진주입니다. 따라서 완벽한 원형모양으로 흠이 없는게 장점으로 많이 찾으시는 제품입니다.

핵진주 브로치 Shall Pearl Brooch \$399 ▶ \$159	\$88	핵진주 반지 Shall Pearl Ring \$399 ▶ \$159	\$88
핵진주 귀걸이 Shall Pearl Earring \$399 ▶ \$159	\$88	핵진주 펜던트 Shall Pearl Pendant \$299 ▶ \$159	\$88

88불 인공핵진주 컬렉션 제품은 수량과 사이즈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구입을 서두르세요! 실버세팅 제품입니다.

고베펄 천연양식 진주목걸이
파격 원가 처리 최저가 판매

일본공법 한국세공

6.5-7.5밀리 (9.25 Silver clasp 실버장식)	▶ \$499 ▶ \$99 ▶ \$88 부터
6.5-7.5밀리 30조 한정 2줄짜리 Double Strands (9.25 Silver clasp 실버장식)	▶ \$1599 ▶ \$599 ▶ \$188 부터
7-8밀리 (14K 장식)	▶ \$999 ▶ \$199 ▶ \$188 부터
8-9밀리 (14K 장식)	▶ \$1299 ▶ \$299 ▶ \$258 부터
9-10밀리 (14K 장식)	▶ \$1499 ▶ \$399 ▶ \$358 부터

★ 흰색 이외에도 다양한 색상과 길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6인치 제품 기준가격입니다. 길이나 색상에 따라 추가가격이 발생할수있습니다.)
★ 고베펄 진주목걸이는 일본공법 / 한국세공 제품입니다.
★ 모든 고베펄 제품은 애프터서비스와 보증서가 첨부됩니다.

고베펄 어머니날 맞이 진주보석쇼
HAPPY MOTHER'S DAY

헬렌 아이코 아코야진주 특별기획전

훈수예단용으로 사랑받는 명품 아코야 Akoya 진주 헬렌아이코 컬렉션이 대량 전시판매됩니다.

남양진주 | 천연 흥산호 | 아코야진주 | 해수진주 | 담수진주 | 자수정 | 유색보석

프리미엄 고베펄 자석팔찌
Magnetic Bracelet
磁気ブレスレット

강력한 고베펄만의 명품 자석의 효능! 타 제품과 비교하지 마세요.

\$499

"어머니날 최고의 효도선물"

다양한 디자인

[시론] 한국교회 위기의 탈출구: 다른 복음을 몰아내라 : 율법주의



정성욱 교수
덴버신학대학원조직신학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종교개혁 교리가 타락의 주범?

한국교회의 안방을 차지해 들어와서 한국교회를 어지럽히고 부패하게 하고 있는 다른 복음 중 하나는 율법주의이다. 율법주의의 기본 정의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주장과, 그런 주장에 근거한 신앙생활이다. 좀더 풀어 해석하면 죄인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도덕적 공로를 세울 경우, 그 도덕적 공로에 대해 하나님께서 칭의나 구원으로 보상하신다는 도덕주의·공로주의적 신념과 그런 신념에 기초한 잘못된 신앙생활이다. 좀더 넓게 말한다면 죄인이 칭의와 구원을 얻기 위해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모든 종류의 조건주의 역시 율법주의라 할 수 있다.

한국교회 내에 팽배한 율법주의는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그 첫째 경우가 바로 오직 믿음과 은혜로 말미암은 칭의와 구원을 거부하고, 죄인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으로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함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 원조 율법주의이다. 이런 원조 율법주의를 신봉하고, 또 그렇게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교단이나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다. 세계 교회사에서 어거스틴과 구원론 논쟁을 벌였던 펠라기우스의 구원론은 율법주의·도덕주의적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펠라기우스는 인간 본성의 전적 타락과 무능력을 거부하고, 인간의 본성이 근원적으로 선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본성적으로 선하고 능력 있는 인간이 도덕법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었다.

둘째 경우가 로마 가톨릭적 율법주의이다. 로마 천주교의 공식 교리에 의하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영세를 받을 때, 죄인의 원죄를 포함한 과거의 죄가 사함을 받고 처리된다. 그러나 이때 칭의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영세를 받은 천주교인은 남은 인생 동안 지속적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뤄야 한다. 천주교의 공식 교리에 의하면 영세 이후 신앙생활 속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뤄가는 과정이 칭의다. 신앙생활 과정에서 영세를 받은 천주교인이 율법의 요구를 이뤄가야 한다는 조건을 성취할 때만 최종적으로 칭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천주교인

이 율법의 요구를 이뤄가는 칭의의 과정 속에서 계속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보속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천주교인들 중 최종적으로 자신이 칭의되어 천국으로 간다고 믿고 또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로마 천주교의 구원론은 펠라기우스주의 같은 원조 율법주의는 아니지만, 오직 하나님 은혜로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믿고 의지함으로써 영 단번에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다는 성경적 구원론에서 크게 이탈한 이단적 주장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죄인의 모든 죄를 일거에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를 믿음으로 불드는 모든 죄인이 영 단번에 의롭다 함을 받아, 영원한 의인의 신분을 얻게 된다는 성경적 구원론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로마 천주교회의 구원론은 예수 믿음에 인간의 율법적·도덕적 공로를 더해야 칭의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의미에서 반(半)펠라기우스주의로 비판받아 왔다.

로마 가톨릭이 가르치는 반펠라기우스주의적 구원론은, 바로 신약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경고한 ‘다른 복음’과 매우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다. 갈라디아서 교회에 들어온 율법주의자 또는 유대주의자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완전성과 종족성을 거부하고, ‘오직 믿음’의 효력을 거부하는 자들이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한다 해서 칭의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에 율법 준수를 더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말한 율법 준수란 할례 받음, 안식일과 다른 절기 준수, 구약 정결음식법 준수 등을 포함한다. 우리의 칭의와 구원은 오직 은혜만으로, 오직 믿음만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완성된다는, 순수한 복음, 순도 100%의 복음, 진짜 복음에서 이탈한 것이다. 이것은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믿고, 다른 복음을 좇는 것이기에 영원히 저주 받아 마땅한 것이었다.

오늘날 이러한 로마 가톨릭적 율법주의가 한국 기독교회 내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예수 믿음에 율법 준수를 더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공공연히 가르치는 교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교회들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회심

한 후 주일성수, 십일조 헌금, 새벽기도, 주초 금지 등을 준수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처럼 가르친다. 심지어 어떤 교회들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주일성수, 십일조 헌금, 새벽기도, 주초금지 등을 준수하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 경고한다. 이들의 의도가 어쨌든, 이런 설교는 철저히 율법적이며,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에 정면 배치된다. 이런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며, 다시금 믿는 자들을 율법과 정죄 의식의 굴레와 속박에 빠져들게 하는 심각한 오류이다.

상술한 관점이 좀 더 노골적인 율법주의라면, 좀 더 미묘한 차원에서 율법주의적 다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교회들은 칭의·구원과 선행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 오해로 말미암아 이런 미묘한 율법주의적 오류에 빠지게 된다. 이들의 주장은 소위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입술로는 신앙고백을 하더라도, 삶 속에 선행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표면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가지고 있는 미묘한 함정은, 여전히 믿음에 선행을 더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율법주의적 패러다임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믿음에 선행을 조건으로 더해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이다.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믿음+선행=구원’이다.

그들이 이런 주장을 내세우는 이유와 배경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교회 내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복음에 합당한 삶과 윤리와는 너무도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의 계속되는 윤리적 실패를 바라보면서 좌절을 경험한 일부 지도자들은, 선행과 윤리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려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 이들의 의도는 심분 이해하더라도, 그들의 가르침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오직 은혜와 믿음과 보혈의 복음과는 배치되는 다른 복음이다. 왜냐하면 선행은 결코 구원의 조건이 아니며, 구원의 조건으로 높여도 안 되기 때문이다.

선행은 참된 믿음의 결과와 열매이며 동시에 선행은 구원의 목적이

요, 증거라는 것이 100% 순수한 복음이다. 이것을 수학적 등식으로 표현하자면 ‘믿음=구원’이며, ‘구원이 뿌리라면 선행은 열매’, ‘구원이 원인이라면 선행은 결과’, ‘구원이 실재하다면 선행은 그 증거’,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목적은 선행’이라는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참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 속에는 선행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것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이때에도 선행은 구원의 조건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와 결과와 목적이 증거로서 따라온다.

최근 교회 갱신 전략으로 제시되었지만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제안들 중 다른 하나는, 바로 성경과 종교개혁에 뿌리를 두고 있는 칭의론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몇몇 영향력 있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런 제안을 하고 있고, 이 제안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일이다. 한국교회는 외부에서 신천지와 하나님의교회 같은 이단들의 공격을 받고 있으며, 동시에 내부에서 교리적 수정주의자들로 인한 혼란으로 골치를 앓고 있는 형국이다.

수정주의자들은 전통적인 교회에서 가르친 칭의론, 즉 종교개혁의 법적 칭의론이 신학적으로 심각한 오류라고 주장한다. 죄인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믿음에 선행을 조건으로 더해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이다.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믿음+선행=구원’이다.

그들이 이런 주장을 내세우는 이유와 배경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교회 내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복음에 합당한 삶과 윤리와는 너무도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의 계속되는 윤리적 실패를 바라보면서 좌절을 경험한 일부 지도자들은, 선행과 윤리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려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 이들의 의도는 심분 이해하더라도, 그들의 가르침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오직 은혜와 믿음과 보혈의 복음과는 배치되는 다른 복음이다. 왜냐하면 선행은 결코 구원의 조건이 아니며, 구원의 조건으로 높여도 안 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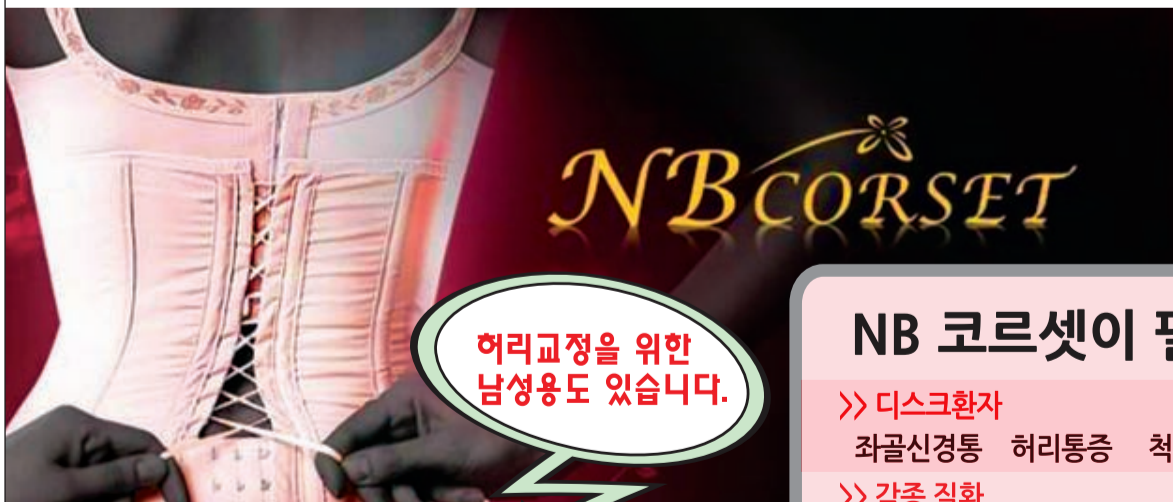
일견 일리가 있는 분석인 것 같으나, 더 깊이 들어가보면 이런 수정주의는 매우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성경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깊이 분석해 보면 죄인을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인이라고 선포하는 칭의는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영 단번의 사건이며 영원한 효력을 가진다. 그리고 칭의는 율법의 행위와 관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와 공로 덕분에, 그리고 오직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과 공로에 대한 믿음만으로 완성되는 사건이다. 한 번 칭의된 자는 영원히 칭의된 것이며, 한 번 칭의된 자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다.

그래서 루터와 칼빈과 같은 개혁자들은 오직 믿음과 은혜로 말미암은 칭의가 복음의 중심이요, 복음의 정체성 자체라고 선포했다. 그리고 참된 믿음으로 칭의된 신자는 성화의 과정을 시작하며,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가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자라가게 된다. 즉 칭의가 뿌리라면, 성화는 열매이다. 칭의가 원인이라면 성화는 결과이다. 성화의 칭의의 증거이며, 목적이요, 칭의와 성화는 서로 구별되지만, 필연적인 연합관계에 있기 때문에 결코 서로 분리될 수 없다. 그러므로 입술로는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거룩함과 선행의 열매가 나오지 않을 경우는 두 가지 중 하나이다. 하나는 그의 신앙고백이 거짓인 경우 즉 참되게 거듭나지 못한 경우이고, 둘째는 신앙고백은 참되나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유치한 단계에 있는 경우이다.

한국교회 내에는 성경적 칭의론에 대한 오해와 남용이 팽배해 있다. 이것은 율법주의적 유혹을 부추긴다. 그렇다 해서 성경적 칭의론을 수정하여 율법주의적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은 복음에 대한 배신이고, 진리의 왜곡이기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무엇보다 성경적 칭의론에 대한 바른 이해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더 나아가 칭의론에 대한 바른 이해에 기초하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신앙인들의 윤리적인 삶을 고취시키는 일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점진적으로 열매를 맺게 될 때 한국교회는 갱신되고 개혁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입으면 허리문제가 해결되는 희안한 옷!!

너무 쉬운 「NB 코르셋의 원리」를 알면 통증의 원인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NB 코르셋」은 내 몸을 멋진 틀(NB 코르셋 깍시에 넣어 자연 치유력을 이용한 과학과 지혜로 미와 건강을 만들어 내는 **결작품**입니다.



허리교정을 위한 남성용도 있습니다.

쓰러진 토마토를 세우는 것은 **버팀목**입니다. 의사가 척추를 바르게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깍시를 하지 않고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팀목(기립근)이 약해서 제대로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NB 코르셋」은 늘어나지 않는 특수 천으로 깍시를 대신하고 코르셋 속의 10개의 버팀목이 약한 근육을 대신하여 **골반과 척추와 경추를** 바르게 교정해줍니다.

NB 코르셋이 필요하신 분

- >> 디스크환자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척추측만증 교통사고
- >> 각종 질환
요실금 중풍 관절염 손발 저림 만성피로
- >> 체형교정
골반 틀어진 분 허리 굽은 분 O형다리 거북이목
- >> 미용효과
목주름 많은 분 얼굴비대칭 복부비만 부정교합

NB 코르셋의 특징

1. 24시간 입어도 갑갑하지 않고 편안함
2. 입자마자 자세가 달라짐(교정)
3. 입자마자 혈액순환이 달라짐(통증완화)
4. 특수 공법의 인체에 완벽한 섬유+세계 특허 이중 지퍼사용 한 **식약처에 의료기기로 등록된 옷.**

NB CORSET Tel: 323.316.6815

WWW.nbcorset.co.kr

3456 W.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무료 광고지참시 방문하신 모든분께

*자세 사진 촬영 *현미경 혈행 검사 *체질 검사

복새통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추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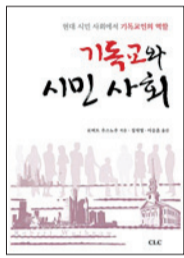
너는 지금을 이겨낼 수 있다
맥스 루케이도 | 아드폰테스 | 280쪽

베스트셀러 저자 루케이도의 최신작. 담임 중인 미 오크힐스 교회 25주년, 목회 40년을 맞아 펴낸 30번째 논픽션이다. 인간의 고통과 고난에 주목하면서도 쉽고 재치있게 이야기를 전달한다. 위기가 끊이지 않았지만 묵묵히 믿고 기다렸던 요셉을 통해 위로를 건넨다.



기독교와 시민사회
로버트 우스노우 | CLC | 232쪽

부제는 '현대 시민사회에서 기독교인의 역할'. 프린스턴대 사회학 교수인 저자는 공공성을 토대로 기독교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 저자는 긴장관계의 다양한 조직들이 포함되는 시민사회는 획일적인 공동체보다 더 바람직한 개념이며, 그 속에서 기독교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지명을 읽으면 성경이 보인다 3
한기채 | 위즈덤로드 | 424쪽

동명의 세 번째 시리즈. 성경 주요 지명들의 유래와 배경을 통해 성경 속 주요 사건들을 입체적으로 풀어낸다. 다윗이 쳐들어간 여부스 성과 압살롬이 반역한 헤브론, 솔로몬이 기도했던 기브온,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을 들던 호렙산과 에스더의 수산 왕궁까지를 담았다.



어거스틴의 참회록
어거스틴 | 생명의말씀사 | 320쪽

어렵게 느껴지는 고전을 쉽게 읽을 수 있는 출판사의 리폼드 시리즈 중 하나로, '쉽게 읽는 참회록'이다. 죄인이었던 어거스틴이 회심하여 주님께로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을 진솔하게 보여준다. 격변의 시대에 세속화에 휩쓸리지 않아야 하는 크리스천에게 나침반과 같은 책.



REVIEW

존 파이퍼 목사의 10가지 '신학적 트레이드마크'

존 파이퍼 목사는 베들레헴침례교회 30년 목회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그동안 전한 설교 중 다시 짚어주고 싶은 내용들을 주제로 2012년 '고별설교'를 진행했다. 설교 시리즈의 제목은 '30년의 신학적 트레이드마크 (Thirty-Year Theological Trade-mark)'였다.

<독트린 매터스(Doctrine Matters)>는 존 파이퍼 목사가 30년의 사역을 결산하며 남기고 싶었던 10가지 신학적 트레이드마크에 대한 설교집이다. 이 책은 그의 설교와 신학사상을 간명하게 정리한 요약문 또는 결론과 같다.

파이퍼 목사는 이 책의 궁극적 목표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인의 기쁨을 위해 만사에서 하나님의 지상권(至上權)에 대한 열심을 확산시키는 것"이라며 "다시 말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크게 강조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을 통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저와 더불어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기쁘게 찬미하게 하려

는 것"이라고 밝힌다.

존 파이퍼 목사가 내세운 열 가지의 '트레이드마크'는 다음과 같다. ① 자존하시는 하나님 ②하나님의 영광 ③기독교 기쁨주의 ④하나님의 주권 ⑤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 ⑥선교를 향한 부르심 ⑦그리스도인다운 삶 ⑧성도의 견인 ⑨성경에서 말하는 남성과 여성 ⑩고난 속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

파이퍼 목사는 책에서 분명 '교리'를 말하고 있지만, 그렇다 해서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내용이나 시무하던 교회에만 적용되는 독특한 것을 말하지는 않겠다고 말한다. 앞에 제시된 10가지 명제들만 봐도, 그가 평소 책이나 설교에서 꾸준히 강조해 왔던 것들이고, "모두 성경에 널리 기초를 두고 있으며 하나님 백성의 역사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것들"임을 알 수 있다.

"우리가 말하는 트레이드마크란, 우리 교회의 특징이 되고 우리 교회를 표현하는 소중한 진리를 뜻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낸 어떤 견해, 우

리를 여타 그리스도의 교회와 구별 짓는 어떤 견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별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과 팔짱을 끼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진리는 분열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연합을 이루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진리가 지닌 연합 능력입니다."

파이퍼 목사는 '하나님은 자존(自存)하신다'는 절대적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할 말을 잃는다고 고백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길들일 수 없을 만큼 거칠고, 억제할 수 없을 만큼 폭발적이며, 전격적으로 미래를 창조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의문을 품고 비판하고 사실상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 집 안에 갇힌 카펫만큼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무도한 행위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열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이 '하나님은 자존하신다'에



독트린 매터스! 존 파이퍼 복있는사람 | 260쪽

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하고, 그 영광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장 크게 만족할 때 가장 잘 드러난다(기독교 기쁨주의)를 찾아낸다. 그리고 그 '하나님 되심(God-ness)'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 교리이다. 이렇게 열 가지 트레이드마크는 구슬 꿰듯 하나하나 연결된다.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성경에서 말하는 남성과 여성'이다. 파이퍼 목사는 남성과 여성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상호 관계를 맺는 방법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는 방식은 '상호보완주의자(complementary)'로 설명한다. 남녀의 성적 특질에 관한 한 서로를 보완해 줌으로써 남녀 사이의 극심한 차이가 포용되고 찬양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드러나고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사역에서도 가장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믿는 이들을 말한다.

상호보완주의자는 성차별적이고 지배적이며 폭력적인 문화에 저항하는 한편, 성의 차이를 개의치 않고 성별을 파괴하는 유니섹스 문화에도 저항한다.

책의 역인이 조나단 파넬은 "2012년 말에 했던 이 열 개의 설교는 한 지역 교회에서 뚜렷이 드러나고 있고, 그 교회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 파이프의 신학적 유산"이라며 "이 유산은 특정 교회 고유의 것이지만 그 감화력은 그보다 더 널리 미치고, 여기 나타난 신학은 세계 전역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고 전한다. 이대웅 기자

<p>세종 송보감</p> <p>“충추는 당노를 잡아라” “막힌 혈관을 뚫어라”</p>	<p>뇌보감 골드</p> <p>“치매예방, 뇌졸중예방” “기억력을 개선합니다”</p>	<p>高麗발효삼</p> <p>“항암 효과, 기력향상, 원기회복” “고려대학교, 액스 생명연구 개발”</p>	<p>세종 요로청보감</p> <p>“요실금, 오줌소태 개선” “전립선건강에 탁월한 효능”</p>	<p>퍼스트레이디</p> <p>“여성건강, 생리활성” “불가리아장미오일 캡슐”</p>
--	--	--	--	--

Biotech SEJONGBIOTECH, INC 문의 : 213-383-8899 www.sejongbiotech.us

판매처
 코리아타운 세종바이오텍 엘에이지사 (월서와 버질길 복음방송2층, 213-383-8899)
 거주건강종합백화점 (한남체인건너편 천중신상점, 213-388-1234)
 비타민 아울렛 (아사미켓 건너편, 213-382-1252) 발문갤러리아아카데미213-388-4100
 글렌데일 한국약국 (글렌데일 한국마켓 내, 818-637-7708)
 세리토스 웰빙건강&선물 (세리토스 시몬마켓내, 562-403-0282)
 부에나팍 네이처영양센터 (부에나팍 한남체인내, 714-690-0120)
 샌디에고 굿모닝약국 (레이시온로드 교차로 스타벅스커피점내, 858-268-1660)
 가든그로브 네처건강센터 (9852가든그로브빌딩, 714-539-3763)

쇼스피드 다이어트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각종통증
- 체중감소
- 정력감퇴
- 미용침
- 알러지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 갑상선
- 불임증(자궁축, 하혈)
- 우울증
- 관절염
- 원형탈모
- 구연산 캡슐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충치예방 2달분 \$60

배배는 숙변약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한국어: 213.380.7800 영어: 213.380.6868 **각종보험취급 (오바마 케어 포함)**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사순절 특집] 그 사랑과 희생을 묵상하면서

말씀과, 고전과, 이웃과 함께하는 사순절의 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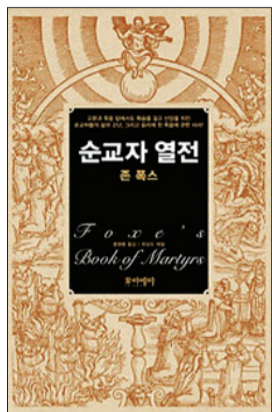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이다. 그리고, 꽃망울이 터지는 봄이다. 책 읽을 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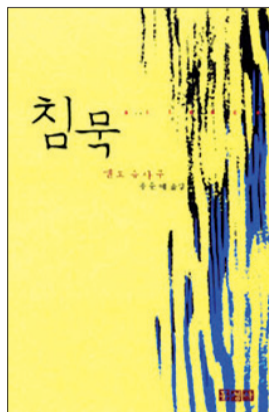
The Last Words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외
생명말씀사 | 419쪽



예수 그리스도 | 마틴 로이드 존스
복있는사람 | 71쪽



순교자 열전 | 존 폭스
포이에마 | 384쪽



침묵 | 조앤도 수사쿠
홍성사 | 308쪽



밥보다 예수 | 강영길
홍성사 | 416쪽

◆ 말씀과 함께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와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의 필라이큰 목사가 공저한 'THE LAST WORDS(이상 생명의말씀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7가지와 부활 후 하신 7가지, 도합 14가지 말씀에 대해 다루고 있다. 두 사람은 필라델피아 제10장로교회를 차례로 목회했던 인연이 있다.

흔히 예수님의 십자가상(From the Cross) 말씀은 '가상철언'이라 해서 잘 알려져 있고, 이에 대한 묵상이나 글도 많다. 그러나 십자가를 이기고(Beyond the Cross) 부활하신 후 주님의 말씀을 7가지로 정리한 경우는 많지 않다. 저자들은 부활 후 하신 7가지 말씀을 'The Real Last Words of Christ'라고 말하고 있다.

그 7가지 말씀은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요 20:15)', '무서워하지 말라(마 28:10)',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요 20:19, 21)',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눅 24:27)', '나를 먼저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눅 24:39)',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요 21:17)'와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8-20절의 '지상명령'이다.

두 저자는 이를 각각 찾는 자(the Seeker), 두려워하는 자(the Fearful), 불안한 자(the Restless), 근심에 싸인 자(the Troubled), 의심하는 자(the Skeptical), 넘어진 자(the Fallen), 모든 사람(the Everyone) 등을 위한 말씀(A Word for)으로 전하고 있다. 제임스 몽고메리 조이스는 '십자가를 배제한 기독교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주제 넘은 착각과 교만으로 이끄는 자기 신격화의 한 유형에 불과하다'며 '예수님이 죽음을 감사하신 이유는, 죽음을 타파하려면 누군가가 단번에 그

것을 정복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톰 라이트 관련 서적을 다수 편찬한 에클레시아북스는 <톰 라이트와 함께 읽는 사순절 매일 묵상집> 마태복음편을 펴냈다. 영국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2010년 사순절과 부활절 기간 성경을 묵상하는 '빅 리드(Big Read)' 프로젝트는 누가복음이었고, 이듬해인 2011년 '흠정역 발간 400주년'을 맞아 분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마태복음을 함께 읽었다. 톰 라이트는 이해 동안 성도들을 위해 지침서들을 썼고, 마태복음 편이 한국에서 먼저 발간됐다.

저자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부터 꼬박 40일간, 그리고 부활주일 이후 1주일간까지 주일을 포함해 53편으로 마태복음 전 28장에 대한 짧은 강해를 펼치고 있다. 날마다 매일의 본문과 간단한 강해, '오늘의 기도'가 이어지도록 구성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Jesus Christ and Him Crucified·복있는사람)>는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가'로 불리는 마틴 로이드 존스(Martyn Lloyd-Jones) 박사가 목회 사역 50년 만에 첫 목회지인 '베들레헴 전진운동 선교교회(Bethlehem Forward Movement Mission Hall)'를 찾아 설교한 내용을 엮은 책이다.

1977년 2월 6일, 로이드 존스 박사는 그곳에서 50년 전 처음 설교했던 본문인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다시 꺼내들고, 2천년 전 바울 사도가 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그것'만을 알고자 했는지 추적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과 화목케 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고, '그것'만이 역사하기 때문이다. 이를 알게 된다면 삶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잠자 임할 영광을 위해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다고 로이드 존스 박사는 역설한다.

◆ 고전과 함께

기독교 2천년 역사는 '피 흘림'이 계속돼 왔다. 2천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후, 열두 제자를 비롯하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참소와 고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다. <순교자 열전(원제 Fox's Book of Martyrs·포이에마)>은 이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 또는 무명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16세기 종교개혁기 저술가인 존 폭스는 1583년 그때까지 일어났던 수많은 순교의 기록들을 모아 이 책을 펴냈다. 최종판이 2천 페이지가 넘었다고 한다. 1563년 초판이 나온 이후 여러 차례 증보판을 내면서 '기독교 순교자들의 보편 역사'를 일일이 기록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당시 글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 성도들이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불꽃 속에서 죽어 가며 찬송을 부른 모습 등을 그린 정교한 목판화들을 삽입했다.

이 책은 "방대함이 도리어 약점"이라는 한 교수의 말이 나올 정도여서 여러 요약본이 출간됐다. 이번에 포이에마 고전 시리즈로 나온 <순교자 열전>은 '저자의 정신과 의도를 잘 반영한' 윌리엄 바이런 포부쉬의 축약본 '라이트하우스 판'이다. 읽다 보면 로마가 기독교 세계로 변화한 후에도 각종 명목으로 순교가 이어졌다는 점, '십자가가 읽어도 되나' 할 정도로 오랜 기간 잔인한 고문과 순교를 이겨낸 유럽인들의 신앙이 오늘날 그 피값을 무색케 할 정도가 된 점 등이 마음을 아프게 한다. 책이 전하는 순교의 역사는 열두 제자와 스테판, 바나바, 바울 등 성경 인물들을 그리고, 네로 황제를 비롯한 로마에서의 열차레 주교 박해를 다룬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후에도 프랑스와 스페인·포르투갈 등 로마의 변방에선 박해가 이어졌고, 새로운 박해

◆ 이웃과 함께

길을 걷다 보면 어디서나 만날 것 같은, 보통의 우리네 열두 명 어머니가 전하는 '예수' 이야기다. 믿음의 어머니 12인의 신앙 열전 <밥보다 예수(홍성사)>이다. 수많은 믿음의 아들들이 신앙과 성공의 비결을 고백할 때 '어머님의 믿음의 기도 덕분'이라고 말하는, 그 어머니들이다.

읽는 사람마다 '나 자신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정도로 평범하다 평범한 집사님과 권사님들이지만, 들여다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신앙의 이야기들이 빼곡하다. '예수가 밥 먹여주냐?'고 묻는 세상에서, 이들 12명의 연약한 여인네들은 한 목소리로 '예수가 밥 먹여 주더라'고 소리친다. 열두 어머니들은 과감한 헌신과 결단으로 각자의 고난을 극복해 간다.

'묵상하는 소설가'라는 저자는 "농촌 교회는 무너지고 도시 교회는 병들어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고향 교회를 돌아볼 때"라며 "한국교회의 뿌리인 어머니의 신앙, 아버지의 신앙, 그분들이 운명을 불사랐던 헌신을 배우고 그 신앙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말한다. 기독교보에 25회 연재됐던 글 중에서 절반을 가려 뽑아 책이 됐다. 같은 출판사의 <내 이름은 아직도 이새별>도 고난과 죽음을 넘어서는 우리네 이웃의 이야기이다.

이대웅 기자

이제부터 수련회는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에서!

1539 E. Howard St. Pasadena, CA 91104. 626.398.2415
conference@wciu.edu www.wciuproperties.com/

당뇨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

송문기 박사 초청 당뇨교육 세미나!

지난 40년간 당뇨 연구의 결정판인 당뇨원인 개선제 프로젝트를 개발해 많은 당뇨 환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송문기 박사를 초청해 당뇨병에 관련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 주최: PROZ USA
- 비용: 무료
- 인원: 100명 선착순(등록 확정해야 함)
- 문의: 213-434-1170
- 일시: 2014년 4월19일 오전10시~12시
- 장소: 한마음제자교회(곽부환 목사)
2333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213) 321-4433

송문기 박사는?



미국 연방정부에서 급격한 비만성 당뇨 환자 증가로 국가 의료비용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에서 "당뇨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법의 잠재적 가치를 크게 인정"해 이례적으로 특별지원자금을 마련, FDA 임상을 진행

- 하와이대학 분자유전학 박사
- 인대애나대학교 의과대학 의약유전학 박사
- UCLA 의과대학 생화학분야 교수역임
- 현,세계적인 과학지 Nature지 연구 관련 심사관 활동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혜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Tel. 323.737.5900 Fax. 323.737.5987
933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중고차 황제 김기형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페인팅 (PAINTING) 마루 (Hard-wood Flooring)

정직 (HONESTY)! *HAND MEN AVAILABLE

(213) 923-2915 U.S. ENTERPRISE Co.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SUM 가격 때문에 컬러 레이저 프린터 사용을 망설였던 목회자분들에게 희소식!

Only \$99.99/month (up to 2000 pages)

프린터 판매 및 리스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고 판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지용 Boltless Shelving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편리함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튼 전문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 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cliff Ave. Lancaster, CA 93535

K.T. 택배 T. 213-365-8588

말도 안되는 가격 \$ 6.99 초고속 픽업 & 배송!!

전화 한통화로 당일무료 픽업!

무료포장 (박스, 충격흡수제 무료)

최저 가격!! 인터넷 사업자 대박우대

소량화물 4개중 1개 공짜!

"가격은 낮추고 서비스는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보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온돌마루

UL마크 인증제품 사용 NRTL(미국 전기 안전 규격제품).

확기적인 절전제품 / 전자파제로

안방 아랫목, 거실, 기도실, 유아방, 찜질방 설치중

피코 건축자재 (피코+카탈리나) 213)256-488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튜업정비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 시몬마켓 내 -

치우차우만두

찐빵 · 고기만두 · 김치만두
아채만두 · 올만두 · 군만두

교회 단체주문 환영합니다. 냉동만두 판매/배달합니다.

CHIU CHAU MANDOO 213.368.0922
3500 W. 6th St., Suite 100 Los Angeles, CA 90020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인삼생리대
익모초생리대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차과와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자신의 효능을 느껴보십시오.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가 추천하는 동의당뇨환!

동의당뇨환 II

당뇨병, 이제 3일이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동의당뇨환II의 특징 *특별 상담해 드립니다

- 100% 순수 한국산 천연 한약재만을 사용
- 처음부터 혈당 강하제, 인슐린 주사를 끊게해 줌
- 1~2주내에 정상 혈당치로 돌아옴
- 피를 맑게 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최대의 합병증을 억제해 줌
- 식후 3회만 복용합니다.

편강 · 실로암 한의원 원장: Oh, Pyong Un
전화 : (213)427-0036, (213)675-8524, Fax: (213)427-0195
2621 W.Olympic Bl. #202 Los Angeles, CA 90006 www.siloamherbal.com

편도선염, 비염, 천식, 아토피의 "편강환"

서효석 박사 연구팀이 폐의 기운을 복돋운 결과, 폐질환은 물론, 피부질환까지 그 효능이 탁월해서 전세계인에게 보급시키고자 미국에 상륙시킨 편강환!

임상실험에서 그 효능이 입증된 증상들

- * 목 감기(편도선염) * 기관지 확장
- * 코감기 및 비염 * 폐기종
- * 기관지염 및 천식 * 폐성유학
- * 어린이의 감기 예방 * 폐렴
- * 아토피성 피부염 * 기미, 여드름, 주근깨, 검버섯

win HYUNDAI 원현대 칼슨

2014 스페셜 LEASE 프로그램과 2013 모델 스페셜

창고정리 대세일!!

<p>2014 SONATA GLS</p> <p>ALL IN STOCK @ \$22,425</p> <p>Lease for \$99 PLUS TAX @ 36 MONTHS</p>	<p>2014 SANTA FE SPORT 2.4</p> <p>ALL IN STOCK @ 26,115</p> <p>Lease for \$199 PLUS TAX @ 36 MONTHS</p>	<p>2013 GENESIS COUPE 2.0T M/T</p> <p>ALL IN STOCK @ 25,490</p> <p>WIN SAVINGS \$3,100 Retail Bonus Cash \$500 VALUED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Grad Rebate \$400</p> <p>UP TO \$5,000 OFF</p>	<p>2013 GENESIS Sedan 3.8 풀옵션</p> <p>ALL IN STOCK @ 44,385</p> <p>WIN SAVINGS \$6,100 Retail Bonus Cash \$1,500 VSO, COMPETITIVE COUPON \$1,5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Grad Rebate \$400</p> <p>UP TO \$10,000 OFF</p>
--	---	---	---

현대차를 원하시는 당신께 최고의 가격을 제공하겠습니다!!

www.winhyundaicarson.com

다 나가기전에 빨리 전화주세요

브로커 환영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Alex Shin 한인 Manager
2201 E. 223rd St., Carson, CA 90810
ashin@winhyundaicarson.com
Phon: 310.830.5100 (Ext 653)
Cell : 562.900.2399
Kakao ID: alexshin878

30만병 판매 기념 특별이벤트

지긋지긋한 당뇨병 탈출

평생을 안고가던 당뇨병이 이제는 치료가 됩니다.
 새로운 당뇨 개선제 PRO-Z를 6개월만 복용하시면
 지긋지긋한 당뇨병에서 해방되어 정상인과 같은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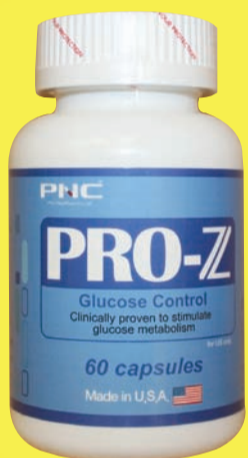
신제품
 소비자가 \$76
 * 한국에서는 \$120에 판매중



!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췌장 베타세포의 기능 개선을 PRO-Z가 해결해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 종류의 당뇨약이나 인슐린으로 혈당 유지를 하는 데 그쳤으나 PRO-Z는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확실히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제재로 세계 최초로 미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받고 있는 당뇨 개선제입니다.



1병 \$69 +tax



2병 \$120 +tax

프로지 효능사례

김 OO 장로(당뇨 10년) :
 프로지를 아침, 저녁 하루 3알을 6달 정도 복용 후에 차츰 당 수치가 내려가 지금은 정상인에 가까운 수치로 떨어짐. 몸이 부어 걷기 불편했는데 붓기가 가라앉아 지금은 걷는데 지장이 없어 졌습니다.

최 OO 목사(당뇨 30년) :
 프로지를 아침, 점심, 저녁에 하루 3알을 6달간 복용하니 차츰 당 수치가 내려가기 시작 했습니다. 서서히 내려가던 당이 7개월째는 정상인 수치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서 혈당 조절을 했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음식을 가려서 먹다 보니 뼈 밖에 안 남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음식을 이것 저것 잘 먹으니 몸에 살이 붓고 건강해졌습니다.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하루 2알만 먹습니다.

이 OO 집사(전립선) :
 전립선이 심해서 화장실 가는 것도, 서있고 앉아 있는 것도 너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프로지를 하루 3알 4달간 복용하고 나서 고통이 점점 줄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비타민 처럼 하루에 2알씩 꼬박꼬박 챙겨서 먹고 있습니다. 고통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너무도 놀랍고 감사합니다.

정 OO 집사 :
 몸이 늘 피곤하고 무겁고 입안에 입병이 자주 났었는데, 프로지를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알씩 한달 정도 먹고 나니 피곤하고 무겁던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감이 덜해졌습니다. 4개월 정도 먹고 있는 지금은 입병도 거의 안 날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제 몸에 부족했던 아연이 보충이 되니 만성피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을 하며 주위 분들에게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뇨전문 치료 한의원인 실로암 한의원에서도 PRO-Z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Tel . 213.427.0036

2641 W.Olympic Bl. #202
 Los Angeles, CA 90006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는

UCLA의과 대학 박사로 40여년간 연구 개발한 PRO-Z는미국 FDA에 치료약으로 신청중이며 주성분인 아연과 크롬으로 의약업계에서 획기적인 연구개발로 임상평가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재향군인 병원에서 임상실험 결과 최소한 6개월 복용시 췌장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프로지 셀러 모집중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 셀러 모집
 상담환영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213.434.1170





북미 최대 한인 현대 딜러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HYUNDAI
100,000
REASONS EVENT

PH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Special Event**

New!

2014 ALL IN STOCK
HYUNDAI SONATA GLS

MSRP: \$22,450. 36 month lease.
After \$3,499 due at lease signing +
\$750 lease cash + \$500 Valued owner coupon +
\$500 Military Rebate + \$400 College grad rebate.



\$89 +TAX
36
Mon.

NEW 2013 GENESIS SEDAN (TECHNOLOGY PKG)
Stock# DU249043, DU247931, 237134

\$269 +TAX

MSRP: \$44,575. 24 months lease. After \$4,999 due at lease signing + \$2000 lease cash + \$500 Military Rebate + \$400 College grad rebate.

NEW NEW 2013 EQUUS SIGNATURE (DEMO)
PURCHASE FOR AS LOW AS

SAVE UP TO **\$15,000**

\$45,170 +FEES

Stock# DU070328, DU069919
MSRP: \$60,170

DRIVE 현대 Let's GO to 브라질

오늘 붉은 악마 티셔츠도 받고 월드컵 관람의 행운도 잡으세요!

행사기간: 3월 22일~5월 4일
자세한 내용은 딜러에 문의하시거나 Facebook.com/HyundaiKA 를 참조하십시오
*NO PURCHASE NECESSARY. Sweepstakes begins at 12:00 A.M. PDT on 3/22/14 and ends at 11:59:59 P.M. PDT on 5/4/14. Open only to legal residents of the 48 contiguous U.S. and D.C. who are at least 21 years old and licensed drivers. (2) Grand Prizes, each valued at \$20,000, will be awarded. Odds of winning depend upon the number of eligible entries received. Void in AK, HI, PR, and where prohibited. Sweepstakes subject to complete Official Rules, available at http://bit.ly/event_rules. Sponsor: Hyundai Motor America. FIFA World Cup™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the 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 Football Association and is used under license.

PH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브라질 월드컵으로 가는 행운을 만나자.

- 1 푸엔테힐스 현대를 방문, 현대자동차를 시승하시면 붉은 악마 공식 티셔츠 증정
*딜러마다 수량이 한정될 수 있습니다
- 2 현대딜러를 방문하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2명에게 2014 FIFA World Cup™ 한국 vs 러시아 경기티켓 및 6박7일 여행권 1인당 2매 증정**

HYUNDAI

1-888-850-2077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스티브 장
626.513.4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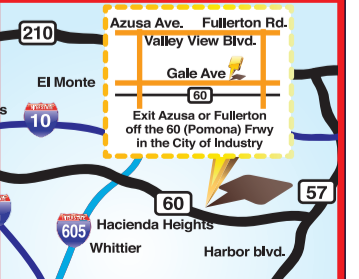


찰리 정
626.513.4981



저스틴 길
626.513.4580

www.phhyundai.com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